

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835.80 (+15.78)		821.25 (-13.04)
	금리 (한국은행)		환율 (원/달러)
	3.878 (+0.040)		1372.35 (+3.75)

821조 슈퍼예산 확정... 중부세 공제 12억 ‘유턴’

내년 예산안·세제개편안 확정

예산 12.8%, 93조 늘어 최대폭 증가
인공지능 부문에 최우선적 비중
‘반도체 호황’ 정부 총수입 881조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내년도 예산안이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 원) 대비 12.8%(93조 원) 늘어난 액수로, 역대 최대폭 증가 폭이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꾀한다. 이 같은 ‘슈퍼예산안’은 급증이 예상되는 세 수입에 기반한다. 내년 정부 총수입은 반도체 호황기와 맞물려 전년 대비 30.4% 증가한 880조8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또 ‘갭투자’ 차단을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중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투자자 반발이 높았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도 현행을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기획예산처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보고했다. 인공지능(AI) 부문에 최우선적 비중을 둔다. 또 첨단산업 등 미래성장엔진 확충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주요 랜드마크 사업에 대한 정책투자 방침을 밝혔다. 우선



추석 성수품 공급 1.6배 확대

1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전 3주간인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배추·무·사과·배·소고기·명태 등 19대 성수품을 평시의 1.6배인 18만3000t 공급한다. 농산물 4만9000t, 축산물 11만1000t, 임산물 2480t, 수산물 2만 규모다.

1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전 3주간인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배추·무·사과·배·소고기·명태 등 19대 성수품을 평시의 1.6배인 18만3000t 공급한다. 농산물 4만9000t, 축산물 11만1000t, 임산물 2480t, 수산물 2만 규모다. /뉴시스

프론티어(선도)급의 독자적 AI 모델을 개발하고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인 베라루빈을 1만 장 규모로 확보할 계획이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및 유수의 해외연구자(20명) 유치에도 나선다. 이 분야에 5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700억 원을 들여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독자적 AI 보안모델도 개발한다.

나아가 이른바 ‘모두의 AI’ 개발에 2조4000억 원을 쓴다. 정부는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AI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크게 2가지다.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알려주고 신청까지 해주는 공공 AI 에이전트와 여행·돌봄 등 민간 AI 에이전트로 나뉜다. 학생·구직자 포함 총 390만 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생애주기 AI 교육 사업’도 실시한다.

미래성장엔진으로는 핵융합과 소형모듈 원전(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을 제시했다. 이들 분야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에는 2조 원 이상을 쓴다. 반도체와 퍼지컬 AI, AIDC(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다.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과 충청권 첨단산업 산업이 주요 대상지다.

미래 모빌리티를 위해 자율주행 실증차 지원을 기존 200대에서 3000대 수준까지 대폭 늘린다. 2030년 달 착륙도 시도한다. 발사체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6000억 원을 책정했다.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시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보조한다. 에너지 대전환 관련해서는 공장지붕·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햇빛소득마을의 확산을 도모한다. **〈4면에 계속〉**

/세종=김연제 기자·서예진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메모리 수직 쌓고, 여러개 묶어... 데이터 처리·용량 확보

삼성전자, 3D 메모리 전략 ‘CUBE’
비트밀도 10배, 전력효율 7배 높여
하이닉스, 메모리 용량 확대에 초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의 성능과 용량 한계를 넘을 새로운 기술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SK하이닉스도 여러 메모리를 묶거나 연결해 필요한 용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AI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커지는 처리 속도와 전력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이다.

1일 업계와 세미콘 타이완에 따르면 최장석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장(상무)과 김호식 SK하이닉스 메모리시스템리서처 담당(부사장)은 이날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메모리 이그제큐티브 서밋’ 연사로 나섰다. 최 상



삼성전자 최장석
DS 메모리사업부 상무



SK하이닉스 김호식
메모리시스템리서처 부사장

무는 3차원(3D) 메모리 전략인 ‘CUBE’를 처음 공개했다. 김 부사장의 발표는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역할 변화와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방향을 다뤘다.

삼성전자가 이날 공개한 CUBE는 용량(Capacity)과 최적화(Utilization), 대역폭(Bandwidth), 전력·열 효율(Efficiency)의 앞 글자를 딴 전략이다.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용량을 확보하고, 칩 사이 거리를 줄여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데 초

점을 맞췄다. 최 상무는 이날 “3D의 궁극적인 목표는 데이터 1비트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라며 “구조적 효율성을 개선해 와트당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으면 인쇄회로기판(PCB) 면적을 늘리지 않고도 용량을 확대할 수 있다. 여기에 메모리와 연산을 담당하는 로직의 배치를 최적화해 데이터 처리 지연을 줄이고 대역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HBM도 3D 기술을 중심으로 성능을 끌어올린다. 삼성전자는 HBM4E 다음 세대인 HBM5의 성능을 HBM4E보다 2배 높이고 와트당 성능은 20%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열 저항은 20% 낮출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용량 확대와 데이터 이동 감소에 초점을 맞췄다. 세미콘 타이완이 공개한 김 부사장의 발표 자료에는 여러 메모리를 묶어 쓰는 메모리 풀

링과 메모리를 추가로 연결하는 확장 기술 등이 포함됐다.

메모리 가까이에서 일부 연산을 처리하는 근접 연산 기술도 담겼다. 데이터를 연산장치까지 옮기는 과정을 줄여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들 기술은 AI 추론 확대로 늘어나는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장문맥 추론과 검색증강생성(RAG), 여러 AI가 함께 작업하는 다중 에이전트 등이 확산되면서 저장하고 처리해야 할 데이터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메모리를 단순 저장장치가 아닌 AI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양사는 AI 시스템별로 요구되는 메모리 성능과 용량에 맞춰 가속기와 메모리를 설계 단계부터 함께 개발하는 공동설계(코디자인)를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ngja_tea@



metro

삼성전기 1조 MLCC계약 따내 수주 규모 역대 최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고성능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삼성전기가 1조원대 역대 최대 공급계약을 따냈다. 글로벌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을 잇달아 확보하며 AI 서버용 MLCC를 중심으로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기는 글로벌 대형기업과 약 1조722억 원 규모의 AI 서버용 MLC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계약은 MLCC 장기공급계약 중 최대 규모다.

MLCC는 전자회로에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조절하고 부품 간 신호 간섭을 막아주는 핵심 부품이다. 특히 AI 서버용 MLCC는 일반 제품과 달리 고온·고전압 환경에서 24시간 가동을 견뎌야 하는 만큼 고용량·고신뢰성 특성이 동시에 요구되며, MLCC 가운데 기술 난도가 높아 소수 업체만 생산 가능하다.

글로벌 고객사와 잇단 장기계약 AI 서버용 중심 고부가 제품 확대
글로벌 10여사와 장기공급 계약

이번 계약은 삼성전기의 MLCC 설계 기술과 고온·고전압 환경에서의 제품 신뢰성, 글로벌 대형 고객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로, AI 서버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입지를 확장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이번 고객사를 포함해 글로벌 기업 10여 개사와 MLCC 장기공급 계약(LTA)을 체결한 상태다.

삼성전기는 지난 5월부터 실리콘 캐패시터와 AI 서버용 MLCC에 대한 약 3조3200억 원 규모의 장기공급계약을 연달아 체결하며,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보와 고부가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AI 서버용 MLCC 시장은 2025년 14억 달러에서 2030년 58억 달러로 연평균 약 34% 성장할 전망이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MLCC 시장에서 4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며 글로벌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기의 AI 부품 장기공급계약은 올해 들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글로벌 고객사와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실리콘 캐패시터 장기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6월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약 4500억원 규모의 AI 서버용 MLC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7월에도 글로벌 대형기업과 3000억원 규모의 AI 서버용 MLCC 공급계약을 추가로 확보했다.



metro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국정원 “북미정상회담, 어느 때라도 가능...김주애 후계자 내정 단계” /사진 뉴시스
▲與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상한 150% 유지”

▲李, ‘하루 차이’ 아동수당 논란 언급...정은경 “소급 검토”
▲공무원 노조, 보수 3.9% 인상에 “합의안 상한 반영 진전”

▲제주 30대女 사인 미궁 속으로...부경장 檢송치
▲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 증원...노동 700명·경찰 215명

K-제약·바이오, 항암·역노화 등 차세대 mRNA 시장 정조준

〈메신저 리보핵산〉

아이진 정부 R&D 연구기관 선정
대웅제약 이온화지질 기술 美 특허
GC녹십자 치료제 제조공정 고도화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이 감염병 예방을 넘어 항암, 역노화, 만성질환 치료제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의 핵심이었던 mRNA 기술이 바이오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한 모습이다.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역시 정부의 R&D 지원과 원천 지식재산권(IP) 확보를 발판 삼아 차세대 mRNA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아이진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K-헬스미래추진단이 추진하는 도전·혁신형 국가 R&D 사업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2개 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진은 향후 5년



대웅제약 연구원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

간 총 26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차세대 mRNA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우선 아이진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응하는 '장기 면역 유도 백신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

mRNA 백신의 한계인 짧은 면역 지속 기간을 극복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성균관대 산학협력단과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잠복소 제거 플랫폼' 연구에 착수한다. 이는 기존 치료제처럼 바이

러스의 재활성화를 단순히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체내에 숨어있는 바이러스 잠복소를 직접 찾아 제거하는 근본적 치료 기술이다. 아이진은 핵심 치료물질 제작,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생산 공정 등을 담당하며 mRNA 플랫폼 적용 범위를 만성 감염병 치료 분야로 대폭 확장할 계획이다.

전통 제약사들의 독자 기술 확보전도 치열하다.

대웅제약은 오는 2035년 약 14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추산되는 글로벌 역노화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오기업 탄바이오로부터 인수한 LNP 전달 플랫폼 'eTurna'의 핵심 원천기술인 이온화지질 관련 기술에 대해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특허 등록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는 노화된 세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기능만 젊은 상태로 돌리는 '부분 리프로그래밍(ER A)' 기술의 핵심 전달체다. mRNA는 체내에서 쉽게 분해되는 특성이 있어 표적 세포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이온화지질 기술이 개발의 최대 난제이자 높은 진입 장벽으로 꼽힌다.

대웅제약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독점적 IP 권리를 확보함에 따라 피부 질

환은 물론 면역 질환, 노인성 난치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과 글로벌 사업화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

개발 후반부의 핵심인 품질 관리 영역에서는 GC녹십자가 독보적 성과를 냈다. GC녹십자는 최근 mRNA-LNP 백신의 물리화학적 안정성과 변형 메커니즘을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 E급 국제 학술지 파마슈티컬스 리서치에 게재했다. 백신이 유통·보관·투여 과정에서 겪는 환경 스트레스를 모사해 mRNA 순도 및 LNP 구조 변화, 체외 단백질 발현 효능 간의 상관관계를 다각도로 입증했다.

GC녹십자는 이를 활용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치료제 제조공정을 최적화하고, 오는 2028년까지 국산 mRNA 백신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해 글로벌 품질 관리 기준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 관계자는 "국내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의 R&D 투자가 뒷받침되는 사례들을 통해 K바이오의 mRNA 영토 확장 가능성이 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李 정부 경제정책 변곡점 관측

경제·산업·재정 등 주요정책 총괄
후임 미정... 부동산 등 기조변화 분석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이틀 만에 전격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청와대 실장급이 교체된 것은 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의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담을 느끼고 사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정책실장은 어제(8월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돼 1년 3개월 만에 직을 내려놨다. 청와대 실장급 고위 참모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산업·재정 정책을 총괄해왔다. 특히 인공지능(AI) 3강 정책,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이재명 정부의 굵직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한편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짓는 데 일조했다. 또 반도체 초초황에 힘입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년 만에 최고치인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코스피도 한때 9000선을 돌파하는 등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비판 여론이 커졌다.

결국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자 정책을 총괄한 김 정책실장의 책임론이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불거졌다.

청와대는 당초 김 정책실장 교체는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2기 개각을 통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때도, 김 정책실장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고, 여론에서는 김 정책실장 사퇴 없이는 지지율이 반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정책실장의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청와대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체하면서 청와대 경제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야권 역시 김 정책실장의 유임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결국 이 대통령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책실장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은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2억원까지로 상향하는 등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원점으로 돌리는 내용이었다.

/사예진 기자 syj@



metro



한화손보

난임 여성



AGE: 32
BLOOD TYPE: A+

"난임은 제아이가 아닐 줄 알았어요"

여성암 경임자



AGE: 37
BLOOD TYPE: B+

"진짜 시작은 퇴원 후, 정기검진이라구요"

**오늘 여성의 웰니스에
꼭 맞는 보험이 되기 위해**

여성의 현실 가까이

갱년기 여성



AGE: 54
BLOOD TYPE: A+

"이제는 산부인과보다 정형외과를 더 자주 가요"

**임신과 출산, 그 안의 고민을
병명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갱년기 그 이후의 삶까지**

AGE: 33
BLOOD TYPE: O+

AGE: 42
BLOOD TYPE: AB+

AGE: 29
BLOOD TYPE: AB+

AGE: 38
BLOOD TYPE: O+

**여성을 위한
현실 밀착형 보험**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안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손보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 1년입니다. <https://www.hwgeneralins.com>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86213호(2026.08.06~2027.08.05)

주택·토지 종부세 상한 150% 유지 주택 기금 45조, 공급에 30조 투입

세제개편안의 후퇴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목받았다. 그간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되돌린 것.

기준 12억 원은 지난 8월 3일 이전의 수준이다. 예전처럼, 공사가격에서 12억 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 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된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9억 원을 유지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 공제 6억 1세대·공동명의 1주택 부담 완화

예산, 미래성장·생계·출산 등 중점 국토부, 9.9% 증가 69조 역대 최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정부안에서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철회하고 150%로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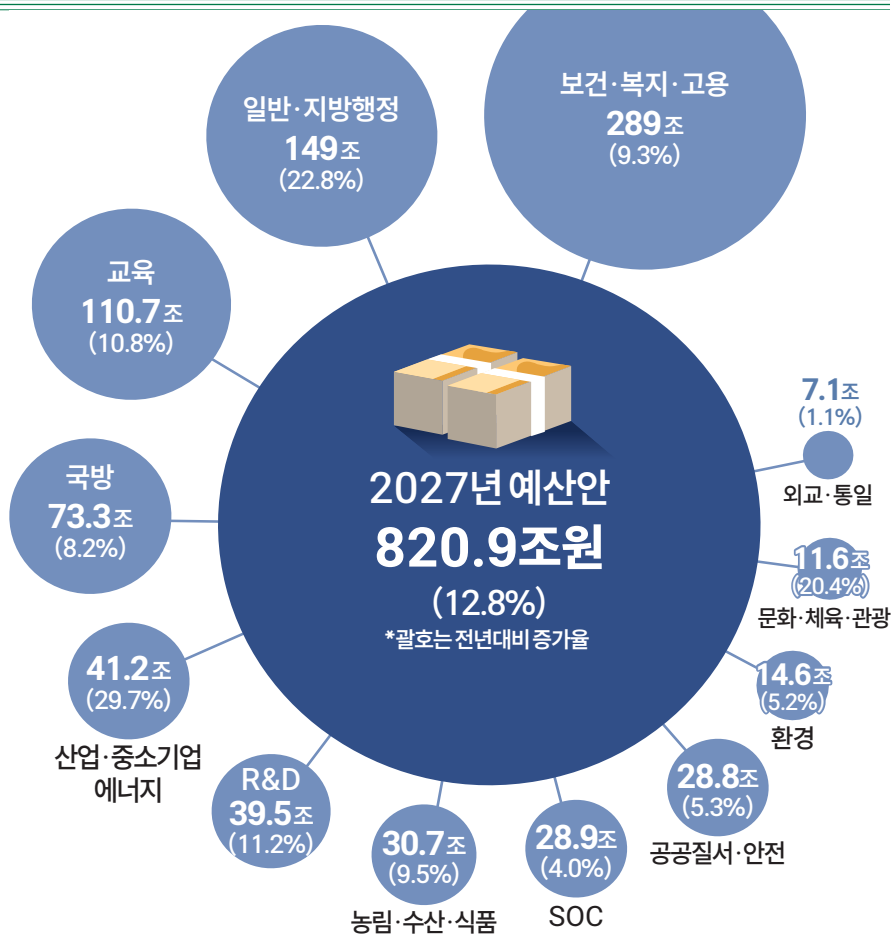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에서 차등을 뒀다. 하지만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

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 거주할 시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시기로 했다. 그 사유로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열거했다.

한편, 기획예산처가 이날 발표한 ‘2027 예산안’에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뿐 아니라 국민의 현재 삶과 관련된 전략도 비중 있게 담겼다. 살 집과 생계, 출산 등에 대한 지원책이다. 특히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 눈에 띈다. 기본소득사업도 전국 농촌 각지로 확대해 실시한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 원 규모로 꾸렸다. 올해 예산보다 9.9% 증가했다. ‘국토’ 부문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역 균형발전 등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회계별로, 예산은 전년대비 2.5% 감소한 24조 원으로 편성된 데 반해 기금은 17.8% 증가한 45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 증액분은 대부분이 주택 기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거안정 지원에 초점이 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관련 예산이 올해 21조2000억 원에서 내년 30조 원으로 8조8000억 원 늘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방침하에 내년 공적주택을 올해(19만4000호)와 비교해 12% 가량 늘어난 21만8000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 공공임대 17만2000호, 공공분양 3만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호 등이다.

이 중 역세권 입지와 중형 평수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 (3만3000호) 신규 도입에 6조2000억 원을 쓴다.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은 청년층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 예산도 기존 1300억 원에서 2319억 원으로 증액한다. 또 ‘주거시설 PF 대출 이차보전 사업’ (1696억 원)과 ‘PF 앵커리츠’ (1000억 원)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인다.

내년으로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도 18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대비 8.2% 늘어난 148조7697억 원이다. 내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더하면 152조4328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의 총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1%에 달한다.

내년에는 아이맞이지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첫째 아이에 1000만 원, 둘째에 1200만 원, 셋째 이상에는 1500만 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연간 4회로 나눠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각 10만 원이다.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0~1세 아동이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월 30만 원이 추가된다.

이는 개편안으로, 내년 7월 1일 이후의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조22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짰다. 올해 대비 10.4% 늘어난 규모로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올해 3047억 원에서 내년 1조1668억 원으로 확대한다. 대상 지역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린다. 이는 전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올린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는 정부 재정이 처음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출연금 20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김연세·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2026 JINAN RED GINSENG FESTIVAL

진안홍삼축제

2026. 9.18.~20. 일

진안 마이산 북부 일원

축하공연 라인업

9.17 (목) 21시 전야제

홍삼빛 낙화놀이

9.18 (금) 18시 개막공연

에일리, 데이브레이크

9.19 (토) 18시 레드에너지 페스타

국카스텐, HYNN(박혜원), 찬(Chan), 한희

주요 프로그램

함께라서 더 즐거운 공연!

캐치! 티니핑 상어통쇼 & 하추핑 포토존
홍삼가족공연(마술,벌룬,버블)

온가족 취향저격, 다채로운 체험

홍삼비비큐, 홍삼한상, 홍삼명인교실,
홍삼깍두기담그기, 홍삼 파워존,
홍삼떡볶이 나눔(with 두끼떡볶이)
마을에서 놀자, 홍삼에너지 충전

머뭇수룩 즐거운 홍삼축제!

蔘蔘한 주제관, 홍삼 키즈존,
홍삼 웰니스타임, 족욕체험 등

제10회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

2026. 09.20. (일) 오후 다섯시

마이산북부 광장 (특설무대)

심수봉, 이찬원, 장민호, 김다현, 윤수현, 미스김

‘모든 청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회

>> 1면 ‘821조 슈퍼예산...’서 계속

또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요건을 폐지해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청년과 지방 재직자는 우대금리 등을 지원한다. 청년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는 물론, 보다 넓은 평수(50~84㎡·15~25평)의 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도 마련했다. 지방 국립대(30개교)의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점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실시한다. 국립대병원 시설도 확충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정 사항을 반영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

한 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종부세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당초 개편안을 유지한다. 다만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비거주 때 기본공제 금액을 각각 9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려던 기존 안을 완화해 각각 6억원으로 조정했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과 같은 각각 9억원을 적용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서예진 기자 syj@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지역 곳곳에 행복을 더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전하는
KB작은도서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청년과 우수기업을 한 곳에 모아
채용 상담부터 면접까지 연결하는
KB굿잡 취업박람회

사장님의 걱정을 덜어주는

상권분석부터 경영지원까지
전문가의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KB소상공인 컨설팅센터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가

국민 모두에게 드리는 희망의 약속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서비스)계약 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3904-1호(2026.08.18.), 유효기간 2026.08.18.~2027.08.17.까지

 KB 국민은행

정기국회 첫날부터 ‘청문회 격돌’… 김승원·용혜인 쟁점 부상

민주당, 추석 전 청문회 완료 계획
국힘, 김승원 지명 철회 0순위 꼽아
대통령 재판 관련 이해충돌 우려 제기

정기국회가 1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9월 중에 치러질 인사청문회를 놓고 초반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였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장관 입각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오는 추석 전까지 이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완료해 국정이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8월31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별도의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금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인사청문 요청안에 제출될 예정이라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제출될 예정인데, 추석 전에는 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에서 “김 의원은 평소 공소 취소 최선봉장을 자임해 왔다”고 했다. 이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쌍방을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해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공소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해야 된다’라고 답했던 인물”이라며 “‘공취모’, 즉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2명 중 1명”이라고 부연했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 야당 법사위 간사로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전력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멘 공소 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아님에도 이재명 정부 내각에 지명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입각시 입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원직을 후순위에게 승계한다는 관례를 깨고 의원직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용혜인 후보자는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의석수가 1석인)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이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11억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닌가. 이견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종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 내정은 이재명 정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숨기기 위한 전형적인 이재명식 기만전술”이라며 “실제 용 후보자에게 여론의 포

화가 쏟아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어떤 사람인가. 과거 대장동 핵심인물 남욱의 변호인단이었고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였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시도가 강행되면 결국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공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 대통령을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두 사람의 인선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법무부는 물론이고, 지금처럼 경제와 부동산이 어려운 때에 재경부와 국토부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리더십의 장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부처를 이끄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장관 지명자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이 승계하도록 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해 온 관례를 분명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두 차례 총선에서 민주 진영 비례 위성 정당에서 출마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해 국회의원이 된 용 후보자를 두고 “지금까지 용 후보자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 눈치가 빠르다는 것으로 여당과 각을 세워야 하는 문제에는 늘 여당과 결을 같이 했다”며 “성평등 장관 후보자로서 가장 중요한 정부와 맞서 자기 소신을 지키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기에 이번 인사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405
영양 자작나무숲

여야 정책위의장단 첫 회동

공동 공약부터 합의 처리

쟁점 법안, 치열하게 속의
세제·노란봉투법 주요 현안

여야 정책위의장단이 1일 정기국회 첫날 상견례를 갖고 각 정당에서 지난 대선, 총선, 지방선거 당시 공동으로 추진했던 공약을 찾아 신속히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이견이 있는 쟁점사안에 대해선 속의를 거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정책위의장, 민병덕·허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희승·허성무 정책위 상임부의장과 국민의힘의 임이자 정책위의장, 박수영·김미애·김은혜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경제 법안 등을 논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단은 2주 후인 9월15일 조찬 모임을 가지고 구체적인 공동 공약을 추려낼 예정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양당 공약 중 공통분모가 있는 부분은 모아서 빨리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쟁점 있는 법안들도 연석회의에서 모여서 속의 과정을 거쳐 될 수 있으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거친다는데 이견 없이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아마도 세계개편안이 견이 제일 클 것”이라며 “그 점에서 양당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듯”이라고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여당으로서도 좀 더 큰 틀에서 야당의 문제제기를 많이 듣고 더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탰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연석회의의 모두발언에서도 양당 정책위 의장단이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를 민생 회복에 두자고 입을 모았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대전환이 진행되는 지금 여야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은 만큼, 오늘 이 자리를 그 출발점으로 만들어가자”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저출생, 기후위기, 국민 안전, 소상공인 보호, 청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한 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이 있는 사안들은 치열하고 허심탄화하게 논의하되, 여야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은 빠르게 처리해 확실한 민생 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했다.

/박태홍 기자

세상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건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일부이자 전부



24h open



happy hour 1+1

BAKERY



BOOK



50
37
km/h

↑ 13_m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차량 전면 유리를 투명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주행 정보 표시 및 이미지·동영상 등을 구현

HYUNDAI
MOBIS

2년 만에 850원대 ‘초엔저’… 여행·엔테크에 환전도 급증

주요 통화대비 원화값 지속 상승
엔화는 제자리… 원·엔환율 급락
5대은행 엔화예금 잔액 1.3조엔
전문가들, 당분간 엔화 약세 지속

원화 대비 엔화값이 100엔당 850원대까지 하락했다. ‘초엔저’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4년 7월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미·일 중앙은행 간의 금리차가 여전히 크고,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한 시장 경계감도 지속되면서 엔화값을 끌어 내렸다. 엔화값 하락에 국내 은행의 엔화 예금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까지 늘었고, ‘엔테크’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 2년 만에 ‘초엔저’ 재현

1일 서울외환시장 원·엔 환율은 정오께 100엔당 856.66원을 나타냈다. 전 거래일의 856.1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원·엔 환율은 2일 연속으로 850원대에 거래됐다. 엔화값이 850원대를 기록한 것은 ‘초엔저’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4년 7월이 마지막이다.

최근 엔화값이 원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것은 주요 통화 대비 원화값이 빠르게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상승한 반면, 엔화값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원화값의 달러값 대비 절상률은 약 12% 수준이다. 하반기 들어 수출기업의 환전이 늘며 수급 불균형이 해소됐고, 달러도 약세 전환하며 원화값을 끌어 올렸다. 반면 같은 기간 엔화의 달러 대비 절상률은 1.49%에 불과했다. 원화값이 강

세 전환하는 동안, 엔화값은 제자리걸음 하며 원·엔 환율이 급락한 것이다.

장기간 지속된 엔화의 약세 배경으로는 미국과 일본 양국 중앙은행 간의 기준금리차가 꼽힌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6월 정책금리를 25bps(1bp=0.01%포인트) 인상해 연 1.0%로 확정했다. 연 3.75% 수준인 미국 기준금리와는 금리차는 연 2.75%p 수준이

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장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 우려도 엔화값이 하락한 이유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출범 이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적극 재정’을 경제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 엔화 약세… ‘환전’도 급증

엔화가 원화 대비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엔화 환전도 빠르게 늘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엔화예금 잔액은 총 1조3456억엔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 말의 1조388억엔과 비교해 3000억엔 이상 급증한 수준으로, 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던 2024년 6월의 1조2705억엔을 큰 폭으로 경신했다.

최근의 엔화 예금 증가는 미래의 관광을 준비하는 내국인들의 여행 수요가 작용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는 945만96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래의 엔화값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기

대한 ‘엔테크’ 수요도 크다. 과거 2024년 7월 100엔당 850원 수준이었던 엔화는 일본은행의 거듭된 정책금리 인상에 힘입어 2025년 4월에는 약 1020원까지 급등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엔화가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향후 강세 전환 가능성도 열어뒀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다카이치가 엔화 약세의 핵심 배경인 재정 우려를 의식해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40조엔 규모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은행의 매파적 행보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일본은행이 9월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엔화 약세 추이를 뒤집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9월 금리인상 후 연내 추가 인상을 약속한다면 엔화값 상승 압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지난 2024년 7월처럼 엔화가 빠르게 강세 전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교통·인프라·교육 3박자 ‘원스톱 라이프’

부동산 현장 르포

‘목동윤슬자이’ 견본주택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도보 10분
주거용으로 계획 ‘중대형 오피스텔’
지하6~최고 48층 3개 동에 651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20년 만의 신축인 ‘목동윤슬자이’가 청약에 나선다. 옛 KT 부지에 들어서는 목동윤슬자이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에서 도보 10분 인박의 거리다. 오목교역에서 출발하면 ‘교육 특구’답게 학원 간판이 뽕뽕하게 붙어 있는 대로변 빌딩과 현대백화점 목동점, 오목공원을 지나면 공사 현장이 나타난다. 오피스텔이지만 중대형 평형인 데다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계획했고, 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에 필수인 커뮤니티는 호텔급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GS건설이 시공하는 목동윤슬자이는 목동 924 외 2개 필지에 들어선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3개 동, 전용면적 114~203㎡ 총 651실 규모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타입별 공급 물량은 ▲115㎡A 118실 ▲114㎡B 208실 ▲114㎡C 118실 ▲119㎡A T1 45실 ▲120㎡A T2 30실 ▲120㎡A T3 15실 ▲117㎡C T1 45실 ▲118㎡C T2 45실 ▲203㎡AD 10실 ▲202㎡BD 9실 ▲198㎡CD 8실 등 총 651실이다. 전 호실에 오픈형 발코니를 적용하고,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해 가족 단위 실거주 수요를 겨냥했다.

김필문 GS건설 목동윤슬자이 분양소장은 “목동은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인프라는 물론 교육에 있어서도 최고 수준”이라며 “목동윤슬자이는 이런 입지를 기반으로 기존 주거공간과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상품 기획 단계부터 랜드마크가 될 만한 외관과 차별화된 커뮤니티, 가족친화적 주거평면으



목동윤슬자이 모형도.

/안상미 기자



203㎡AD 유닛 내부 전경.

/GS건설

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퍼트(Hypert)’는 ‘초월’을 의미하는 라틴어 ‘하이퍼(Hyper)’와 ‘아파트(Apartment)’의 합성어다. 핵심 입지 내 실용적 평면을 바탕으로 고급 커뮤니티와 단지 내 원스톱 라이프를 가능하게 한 하이브리드 주거 카테고리 목동윤슬자이가 처음 선보인다.

견본주택에는 전용 114㎡B, 115㎡A, 203㎡AD 등 3개의 유닛이 공개됐다. 각각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확장된 발코니 부분을 내부 공간으로 활용해 오피스텔이 전용면적 대비 좁다는 편견을 깬다.

전용 114㎡B는 거실 이면개방 설계로 채광·통풍을 극대화했다. 발코니가 5곳에 달해 채광면적은 일반 아파트 40평대와 비슷했다. 거실과 이어진 발코니는 거실

의 연장으로 쓰고, 주방 옆 벽면을 통째로 책장으로 세운 서재형 다이닝으로 꾸몄다. 자녀방 쪽 발코니는 집중 학습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등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이 아니라 방 하나로 설계했다.

전용 203㎡AD는 복층형이다. 현관에는 유리도어를 넣은 대형 신발장이 벽 하나를 채우고 그 인쪽에 팬트리도 따로 마련됐다. 아래층 공용 공간인 거실은 층고가 상부층까지 트여있고, 위층 개인 공간에는 야외 테라스와 스파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1~14단지 부지는 대부분 주거용지로 목동 재건축이 본격화해도 생활권의 중심은 오목교역 일대에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목교역 일대의 중심성 확대와 함께 재건축에 따른 주택 멸실도 신규 주거 수요를 끌어들이 것”이라고 전했다.

목동윤슬자이 견본주택은 오는 3일 개관할 예정이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된다. 주거형 오피스텔로 공급돼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는 100% 추첨제로 선정한다. 입주는 2030년 하반기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진옥동 “신뢰할 수 있는 AI 설계가 경쟁력”

신한금융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앞으로 중요한 경쟁력은 단순히 인공지능(AI)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넘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AI를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은 1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열린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이날 진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최고경영자(CEO)와 지주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진 회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지난 25년간 신한금융의 성장 과정을 되짚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한 핵심 가치로 ‘신뢰’와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시했다.

진 회장은 우선 신뢰를 다음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행조건이자 결정적 요인으로 규정했다. 금융서비스의 방식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더라도 금융회사는 결국 고객의 신뢰를 통해 평가받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AI 확산으로 금융회사가 관리해야 할 신뢰의 범위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내다



봤다. 향후 고객을 대신해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투자와 거래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보편화될 경우 금융사의 AI 설계 역량 자체가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회장은 “앞으로 중요한 경쟁력은 단순히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넘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AI를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를 잃는 것은 미래의 성장 기회를 잃는 것과 같다”며 내부통제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부통제를 비롯해 수익성, 시장 지위, 고객기반, 조직문화, 인공지능 전환(AI) 등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회장은 “신한의 지난 25년은 성공과 실패, 도전과 반성을 거치며 성장해 온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신한만의 확고한 신뢰와 서로를 받쳐주는 모든 영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높이 도약해 나가자”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은행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개시

미래에셋생명과 업무협약

하나은행은 미래에셋생명과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해당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미래에셋생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전용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을 판매한다. IRP 고객의 선택지를 기존 예·적금과 펀드에서 보험상품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다.

해당 상품은 IRP 적립금을 글로벌 주식과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면서 장기적

인 운용성과와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함께 추구하도록 설계됐다. 만 50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 원하는 시점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개시 시 확정된 연금기준금액을 바탕으로 20년간 매월 일정한 연금액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별계정 적립금이 보증기간 중 소진되더라도 약정된 연금액은 20년 동안 지급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 목적과 은퇴 시점, 생애주기를 반영한 차별화된 연금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산업계, 임단협 희비 엇갈려… 車 ‘타결’ 조선·철강 ‘파업임박’

SK하이닉스 잠정합의안 부결
HD현대중 부분파업 등 위기감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

조선·철강·반도체 업계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9월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HD현대중공업과 포스코가 파업을 앞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잠정합의안 부결로 교섭 향방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임금·성과배분을 둘러싼 입장차에 더해 사업장별 쟁의 경험의 차이도 향후 교섭의 변수로 꼽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2일 집행간부·교섭위원·대의원 등이 참여하는 7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4일 확대간부 4시간 파업에 이어 8~10일 산하 조직별 순환파업을 벌이고, 15일에는 전 조합원으로 확대한다. 실제 파업 시 2023년 이후 4년 연속이다.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첫



HD현대중공업 작업장 전경.

/HD현대중공업

파업 기로에 섰다. 노조는 오는 9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포항·광양제철소 각 1개 공장에서 48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현실화하면 58년 무분규 기록도 중단된다.

노조는 성과에 걸맞은 보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공유, 상여금 800% 확대, 주 4.5 일제를 요구한다. 포스코 노조도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와 함께 안전특별위원회 설치, 장시간 노동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양사 모두 노조 요구에 부담을 나타내지만 이유는 다르다. HD현대중공업은 조

선업 특유의 실적 변동성과 R&D·설비투자 재원 확보 필요성을, 포스코는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와 보호무역 확산 속 요구안 수용 시 약 1조4000억원의 비용 발생을 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잠정합의안 부결로 교섭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PS) 자사주 분할 지급안을 담은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50.08%로 부결됐다. 노사는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다시 협의할 전망이다. 지난 2023·2024년처럼 재협상을 거쳐 2차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완성차 업계는 이날로 올해 임단협을 모두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가 지난달 31일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면서 한국GM·KG모빌리티·르노코리아·기아에 이어 주요 완성차 업체의 교섭이 모두 끝났다.

파업을 예고한 사업장에서는 사측의 추가 제시안과 함께 노조의 쟁의 경험도 향후 교섭의 변수로 꼽힌다. 쟁의행위는 적

법성 여부에 따라 노조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크게 달라진다. 실제 현장에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뿐 아니라 노동조합 법상 금지 범위와 협정근로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적법한 파업 요건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데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권태혁 노무사는 “파업 일정 공개는 사실상 교섭의 마지막노선을 설정했다는 의미”라며 “사측의 유의미한 추가 제시안이 없다면 파업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파업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쟁의 실행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포스코 노조는 첫 파업 가능성을 앞두고 전략과 수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교섭은 노사가 서로의 협상 한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metro

삼성·LG, 100만원대 실속형 노트북 시장 격돌

삼성전자 ‘New 갤럭시 북6’ 출시
LG전자 ‘그램북 AI 2026’ 선포

메모리와 중앙처리장치(CPU) 등 주요 부품 가격 상승에 따른 ‘침플레이션’으로 노트북 가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춘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가격대별 라인업을 넓혀 소비자 선택 폭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New 갤럭시 북6’와 ‘LG 그램북 AI 2026’을 출시하며 100만원대 노트북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이날 New 갤럭시 북6를 국내 출시했으며 LG전자는 오는 7일부터 LG 그램북 AI 2026 판매를 시작한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New 갤럭시 북6의 가격은 CPU와 운영체제 등 세부 사양에 따라 119만~149만원이다. 지난 4월 출시한 갤럭시 북6의 시작 가격인 160만원과 비교하면 진입 가격이 41만원 낮아졌다.

제품 사양은 학습과 과제, 업무 등 일상적인 사용에 초점을 맞췄다. 인텔 ‘코어 시리즈3’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한 번 충전하면 동영상을 최대 25시간 재생할 수 있다. 35.6cm(14형) 디스플레이에 16대10 화면비를 적용했으며 무게는 1.35kg이다.

갤럭시 생태계를 활용한 연결 기능도 지원한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을 PC



‘New 갤럭시 북6’

/삼성전자

에서 열거나 스마트폰·갤럭시 탭과 PC 사이에서 파일을 옮길 수 있다. 이미지 배경을 제거하는 ‘AI 컷 아웃’, 웹페이지 문장을 실시간 번역하는 갤럭시 AI 기능 등도 제공한다.

LG전자도 실속형 노트북 제품군인 그램북 라인업을 확대한다. 오는 7일 출시하는 LG 그램북 AI 2026 14형의 출하가는 145만원부터다. 초경량 프리미엄 제품인 ‘LG 그램’의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이어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에는 전력 대비 성능을 높인 2026년형 인텔 코어 시리즈3 프로세서와 61.2Wh 배터리를 탑재했다. 최대 30.5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 소재의 풀메탈 바디를 적용하면서도 무게 1.29kg, 두께 14.9mm로 휴대성을 높였다. 그램북 시리즈에서 14형 제품을 선보이는 것은



LG 그램북 2026.

/LG전자

이번이 처음이다.

LG 그램의 기기 연결 경험도 이어받았다. ‘LG 그램 링크’를 이용하면 제조사와 관계없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연결해 사진과 동영상 등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코파일럿 단축키를 통해 윈도우 AI 기능을 실행할 수 있으며 HDMI와 USB-A·USB-C, 유선 랜 등 다양한 단자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New 갤럭시 북6를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한다. LG전자는 오는 7일부터 LGE닷컴과 오픈마켓에서 그램북 AI 2026 판매를 시작하며 구독 방식도 운영한다. 구독 고객에게는 최대 4년간 무상 A/S를 제공하고 선택한케어 서비스에 따라 배터리와 키보드를 구독 기간 내 한 차례 무상 교체해준다.

/차현정 기자 hyeon@

대산 1호 프로젝트 ‘H&L어드밴스드’ 출범

고부가 제품 중심 사업구조 전환

국내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인 ‘대산 1호 프로젝트’의 통합법인 ‘에이치앤엘(H&L)어드밴스드’가 1일 공식 출범했다. H&L어드밴스드는 앞으로 3년간 연산 11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과 저수의 설비를 줄이는 동시에 남은 설비의 생산효율을 높이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한다. 중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설비 증설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재편을 원가 절감과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 확보로 연결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케미칼은 롯데케미칼이 지난 6월 대산사업장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H&L어드밴스드로 변경했다. 합병 전 HD현대케미칼 지분은 HD현대오일뱅크가 60%, 롯데케미칼이 40%를 보유했지만 통합 이후 양사가 각각 50%씩 나눠 갖게 됐다. 초대 공동대표는 이사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 측에서는 천양식 전 롯데대산석화대표가

공동대표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법인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연산 110만톤 규모 NCC 가동을 중단하고 양측의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가운데 중복되거나 수익성이 낮은 시설도 순차적으로 줄인다. 대산에서 감축하는 NCC 생산 능력은 정부와 업계가 제시한 국내 전체 감축 규모인 270만~370만톤의 약 30~40%에 해당한다.

설비 감축과 함께 남은 생산시설의 효율화와 고부가 제품 전환에 총 5800억원을 투입한다. 시설 통합과 생산효율 향상에 2450억원, 고부가 제품 생산 전환에 3350억원을 배정했다. 범용제품 생산능력을 줄이는 대신 남은 설비에 생산을 집중해 현재 80% 수준인 가동률을 최대 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 확충도 추진한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통합법인에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정부도 금융·세제 지원 등을 포함한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국엔컴퍼니그룹, 생성형 AI 전면 적용

업무 전반 AI 활용범위 확대

한국엔컴퍼니그룹이 그룹 공통 업무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 전반에 접목한다.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 탐색과 기획, 의사결정, 글로벌 협업 등으로 AI 활용 범위를 확대해 전사 업무 생산성 제고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그룹 공통 업무 플랫폼 ‘아레나(Arena)’를 에이전트 AI 플랫폼 전문기업 가온아이와 협업해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된 아레나는 일주일간 베타 테스트를 거쳐 실제 업무 환경에서 주요 기능을 점검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임직원의 직무와 업무 목적에 맞춰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AI가

지원하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한 것이다. 특히 반복 업무 자동화와 맞춤형 업무 봇 구성 등을 지원해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소요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플랫폼 개편은 한은시스템 합류 이후 확대된 그룹의 사업 및 조직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타이어·배터리·열관리로 이어지는 3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데 이어 계열사 간 조직·문화·인프라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엔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일상 업무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AI 활용이 실제 생산성과 실행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지속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에너지솔루션, 美 현지 탄산리튬 확보

스맥오버 리튬 공급계약… 10년간 8만t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현지에서 탄산리튬을 장기 확보하며 북미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 전력 수요 증가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조달해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스맥오버 리튬(Smackover Lithium)과 탄산리튬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맥오버 리튬은 미국 리튬 개발업체 스탠다드 리튬(Standard Lithium)과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놀(Equinor)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계약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스맥오버 리튬이 양산을 시작하는 2029년부터 10년 동안 탄산리튬 총 8만톤을 공급받는

다.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고성능 전기차 약 18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탄산리튬은 미국 아칸소주에서 추진되는 ‘남서부 아칸소 프로젝트’에서 생산된다. 스맥오버 리튬은 직접리튬추출(DLE)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고품질 탄산리튬을 생산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탄산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북미 공급망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청년창업 요람’ 청창사 사라진다… ‘재도전성공학교’ 전환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부, 내년 예산 18.1조 ‘역대 최대’ 재창업자 입교·교육 19개 거점 활용
美 인큐텔형 안보전문투자기관 신설
신안보·혁신기업 정부 직접 투자
모두의 창업 지원 2만명으로 확대
사업화 자금 최대 3000만원 지원

‘청년창업 요람’ 역할을 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재도전성공학교’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설립한 비영리 전략적 벤처캐피탈(VC) ‘인큐텔’(In-Q-Tel)과 같은 안보전문투자기관이 한국에도 생긴다.

올해 1만5000명을 지원했던 ‘모두의 창업’은 내년에 2만명까지 규모를 늘리고 사업화를 위한 지원자금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9.4%) 늘어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이 3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7년 중소기업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고 1일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

하고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예비 또는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심리 치료 및 교육 등을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학교(595억원), 재도전 성공사례 보유기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334억원)를 내년 처음으로 시작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도전성공학교는 기존의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와 같이 입교해 교육·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에 있는 19개의 거점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11년 초 경기 안산에 처음으로 문을 열어 전국으로 확대한 청창사는 올해까지 16기를 배출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재도전성공학교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청창사는 없어진다. 중기부 산하기관 가운데 창업 관련 업무는 창업진흥원으로 일원화하고 중진공은 재도전·재기 지원 등을 전담한다.

중기부는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을 위한 예산 38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노용석차관은 “안보전문투자기관은 중기부와 방위사업청이 함께 만드는 것으로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신안보 후보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는 투자와 육성도 중요하지만 안보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가 관련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이 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안보,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 발굴을 위해 내년 예산에 100억원을 처음 배정했다.

모두의 창업은 내년에 더욱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4411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창업 도시에 있는 창업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지역정책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 1700억원(신규), 답테크 중심의 창업중심대학 확대를 위해 108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초기창업기업, 지역기업, AI·답테크 등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확대를 위

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역대 최대인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올해 중소기업 모태펀드출자를 위한 예산은 8200억원이었다.

중기부는 민간 배달플랫폼 독과점 완화,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 1240억원도 편성했다.

중기부는 “예산 중 1200억원은 상생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할인쿠폰에 활용할 예정이고 나머지 40억원은 홍보 예산이다. 할인쿠폰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과 연계하기 때문에 ‘박인효과(Lock-in Effect)’가 있을 것”이라며 “전국에 있는 12개 공공배달앱 가운데 공공성, 시장성 등을 평가해 3~4개를 선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외에도 생업에 집중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수검에 따른 휴업 비용,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2050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왼쪽 6번째부터)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강명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 등이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전략경제와 중소기업 AI 전환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K-온톨로지·AI 팩토리, 中企 참여가 핵심”

중기중앙회·재경부, AI 세미나 개최
박영선 “AI 전환에 中企 역할 중요”
AI 에이전트 대응 업종별 연대 제안

‘K-온톨로지 프로젝트’와 ‘AI 팩토리 활성화’를 위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AI 에이전트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중소기업의 연대도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재정경제부가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전략경제와 중소기업 AI 전환 세미

나’에서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은 ‘전략경제와 중소기업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AI 대전환 시대에는 경제·산업·과학기술·안보정책을 묶어서 전략경제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의 핵심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준비와 데이터 기반의 K-온톨로지 프로젝트 및 AI 팩토리 활성화에 중소기업이 함께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한국형 AI 컴퓨팅 스택 구축 ▲산업 특화형 AI 에이전트 육성 ▲국가 차원 AI 팩토리 전략을 AI 생

태계 설계 국가의 필수 요건으로 제시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 겸 AI 에이전트 커머스 분과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커머스 글로벌 트렌드와 중소기업 대응’이란 주제 강연에서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중소기업이 연대하는 협력형 규제샌드박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중심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재정경제부가 설치한 민간 자문기구인 전략경제자문단의 전략산업 중 AI 에이전트 커머스와 AI·로보틱스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삼성 “주말 낮, 가전 쓰면 캐시백 드려요”

한전과 두 달간 시범사업 운영
세탁기·건조기 등 4개 품목 대상

삼성전자가 주말 낮에 스마트가전을 사용하면 캐시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로 가전 사용을 유도해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스마트싱스를 통한 에너지 관리도 확대한다.

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이날부터 두 달간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대상 가전을 사용하면 전력 사용량 1kWh당 100원, 시간당 최대 3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제품은 세탁기와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등 4개 품목이다. 전력 사용 비중이 높고 사용 시간을 조절하기 쉬운 제품들이다. 캐시백은 전기요금 차감 또는 현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전기를 덜 쓰는 기존 절감 방식과 달리 사용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로 가전 사용을 유도해 전력 수요를 분산한



삼성전자 모델이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다. 실제 태양광 발전이 늘면서 전력 수요가 낮아지는 시간대로 바뀌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봄·가을 주말과 연휴에는 최소 전력수요 시간대가 기존 새벽에서 낮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에 캐시백 서비스를 연동했다. 스마트싱스 앱 ‘다이프’ 탭의 ‘에너지’에서 ‘스마트가전 캐시백’ 연결 버튼을 선택한 뒤 회원가입과 기기 사용량 데이터 공유에 동의하면 참여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100곳 시범 지정

기정원, 올해 첫 지정제 시범 운영
29일까지 스마트공장 시스템 접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핵심추진단이 기술력과 현장 실행력이 검증된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1일 기정원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시장 신뢰 구축과 글로벌 선도기업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올해 100개 사 내외를 시범 지정하는 것으로, 오는 9월 29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기정원은 이날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9일 창원, 10일 대전에서 ‘스마

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시범지정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전문기업 지정제도는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전략 3.0’의 후속 조치로, 중소제조현장의 AI 전환을 실제로 수행할 제조 AI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지정 대상은 스마트제조기술산업 4대 분야(자동차기기·연결화기기·정보화솔루션·지능화서비스)의 공급기업으로, 주력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한다.

평가는 서면검토, 현장실사, 지정심의위원회의 3단계로 진행된다. 역량진단 결과 및 현장평가 결과, 분야별 분포를 종합해 지정기업을 최종 확정하고, 결과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中企 신용평가비 최대 90% 할인

중진공·NICE평가정보 업무협약
신용·기술평가 비용 부담 낮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NICE평가정보와 중소기업의 기업신용·기술평가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 입교·졸업 기업과 중진공 정책자금 이용 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 과정에서 부담하는 신용·기술평가 비용을 낮추고 기업의 신용관리와 공공기관 입찰에 필요한 실무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신용·기술평가 수수료 할인 ▲기업 신용평가 및 공공기관 입찰 실무교육 제공 ▲중소·창업기업 지원사업 공동 홍보 ▲중소기업 지원 분야 협력사업 발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NICE평가정보는 청창사 입교기업과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 신용평가 수수료를 최초 1회에 한해 5만원에 제공한다. 이는 기업형태에 따라 정산가격 대비 최대 90% 할인된 수준이다. /김승호 기자

울산 미래성장펀드 출범

울산 지역성장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본격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울산광역시 중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미래성장 펀드’ 결성식에 참석, 울산에 중점 투자하는 울산 벤처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끝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 미래성장 펀드’는 모태펀드의 350억원을 마중물로 해 울산광역시, HD현대중공업, 고려아연, 경남은행, 농협은행, 울산과학기술원 등 지역의 기업, 은행, 대학과 같은 다양한 지역 사회 구성원이 출자자로 참여하며 총 5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탄생했다.

/김승호 기자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Salut 
Lucide
UV PROTECTION PATCH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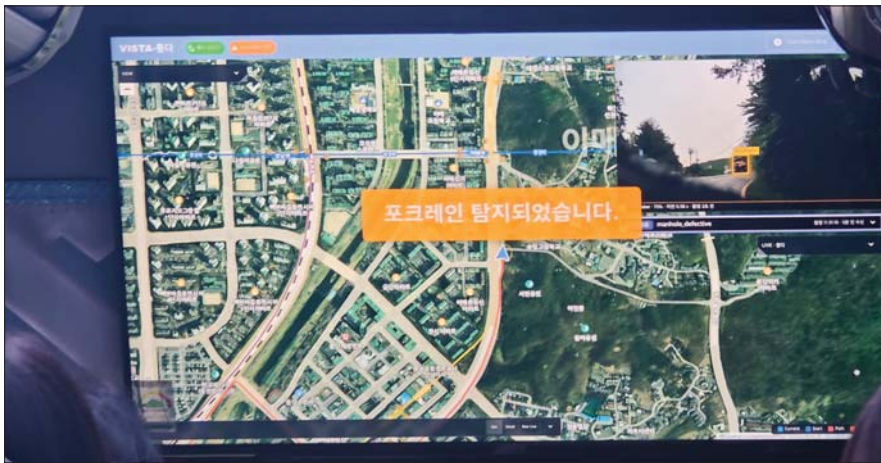
“굴착기 움직임 포착”… SKT, AI로 통신망 위험요소 훑는다

AI 영상 분석 플랫폼 ‘툇다’ 공개
공사장·선로 등 11개 위험요소 인식
탐지 정확도 88%… 내년 95% 목표

카메라가 설치된 현장 차량이 도로 위를 주행하며 공사장 포크레인 등 위험 요소를 탐지한다. 굴착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단선 위험이 사무실 서버로 전송된다. AI 영상 분석 플랫폼이 이를 분석하고 알람을 통해 사전 조치한다. 약 30분 만에 고객 수 만명의 통신 오류 위험을 예방했다.

1일 SK텔레콤은 경기도 분당 사옥에서 ‘SK텔레콤 네트워크 운용 현장 AX’ 기자 간담회를 열고 통신 인프라 AI 점검 솔루션 ‘툇다’를 소개했다. 이는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AI 영상 분석 플랫폼 ‘비스타’를 활용해 유선망 인프라 주변의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탐지·분석하는 솔루션이다. 전국 곳곳에 설치된 통신 인프라를 ‘살살이 훑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기술 설명에서 복재원 SKT 네트워크 운용담당은 “툇다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4개월에 걸쳐 파일럿을 진행했다”며 “내년까지 전국 70% 범위로 확대하고 기술 완성도와 커버리지를 지속적으로 높여 2028년에는 90% 이상 수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AI 점검 솔루션 ‘툇다’ 시연 현장.

◆비전·맥락·공간 AI 결합…유선망 위험요소 자동 탐지

이동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연결을 위해서는 기지국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는 유선망 인프라도 중요하다. 광케이블 유선 구간은 최대 400km로 전국의 모든 유선 인프라를 사람이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표적인 통신 인프라인 전주만 전국 약 235만개에 달한다. 이는 전국 가로등의 70% 수준이다. ‘툇다’는 이 같은 인력 중심의 점검 한계를 해소하고 대규모 유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했다.

해당 솔루션은 세 가지 AI 기술을 연계한 플랫폼 ‘비스타’를 통해 관리한다. 먼

저비전 AI는 영상과 이미지 속 대상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기술이다. ‘툇다’에는 공사장과 중장비, 선로, 시설물 불량 등 통신 인프라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위험 요인을 분류해 인식하는 기능이 적용됐다. 현재 위험 요인 탐지 정확도는 88% 수준이며, 데이터 축적과 기술 고도화를 통해 내년까지 정확도를 95%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복 담당은 “비전 AI의 핵심은 다량의 현장 데이터 베이스 확보”라며 “약 5년 동안 쌓아온 현장 조치와 관련한 이미지를 2만 2000장을 통해 위험 요인을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변 상황과 결합해 의미를 판단



1일 경기도 분당에서 진행된 네트워크 운용 현장 AX 간담회에서 복재원 SKT 네트워크 운용 담당이 기술 설명을 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하는 ‘맥락 AI’가 작동한다. 예를 들어 포크레인의 움직임과 주변 공사 현장 상황을 함께 분석해 실제 굴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 주변 정황까지 종합해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다.

마지막으로 ‘공간 AI’가 2차원 영상을 3차원 공간 정보로 변환해 위험 요소의 위치와 변화를 추적한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만으로도 위험 요소가 통신 인프라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파악하고 정확한 위치를 산출하는 기술이다. 복 담당은 공간 AI가 세 가지 기술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미국 스위프트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연계해 위치 정확도를 1~2m 수준까지 확보했다.

◆무선·코어망도 AI 적용…전 영역 네트워크 AX 전환 박차

SK텔레콤은 앞서 무선망과 코어망 네트워크 운용에도 AI를 도입하며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무선망에서는 ‘에이원 솔루션’을 통해 이벤트 트래픽을 예측하고 네트워크 품질을 모니터링한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해당 솔루션을 적용한 결과, 대응 준비 기간을 기존 5일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투입 인력도 약 60% 줄였다.

코어망에서는 AI로 장애를 감지하고 최적의 조치를 추천하는 ‘스파이더’를 활용하고 있다.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장애 대응 과정과 조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해 향후 AI 학습에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장애 복구 시간을 24% 단축하고 고장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SK텔레콤은 향후 ‘툇다’의 적용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현재 약 4개월간 수도권을 대상으로 파일럿 운영하며 전체 점검 대상의 약 50%를 점검했다. 내년에는 점검 범위를 70%까지 확대하고 연간 수십 차례 주요 통신 인프라를 순회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엔비디아, 미디어텍과 맞춤형 AI칩 동맹

오늘 AI

미디어텍에 35억달러 투자
‘NV링크 퓨전’ 생태계 확대

엔비디아가 대만 반도체 설계업체 미디어텍에 35억달러(약 4조 8000억원)를 투자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협력을 강화한다. 글로벌 빅테크와 클라우드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AI칩 개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이들 칩을 자사 AI 인프라와 연결하며 생태계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달 31일 미디어텍이 발행하는 전환사채에 35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미디어텍이 발행하는 총 39억달러 규모 해외 전환사채의 일부다. 양사는 이를 계기로 AI 인프라와 개인용 AI 컴퓨팅, 자동차 등 3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협력의 핵심은 엔비디아의 ‘NV링크 퓨전’이다. 미디어텍은 NV링크 퓨전을 도입해 하이퍼스케일러와 클라우드 서비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 6월 8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엔비디아 코리아 AI 에코시스템 리셉션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다. /공동취재단

기업, AI 모델 개발사가 자체 설계한 맞춤형 XPU를 엔비디아의 랙스케일 AI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V링크 퓨전은 엔비디아가 맞춤형 CPU와 AI 가속기 등을 자사 AI 인프라에 연결하기 위해 구축한 플랫폼이다. 고객사가 자체 개발한 칩을 엔비디아의 고속 인터커넥트와 메모리,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미디어텍은 맞춤형 반도체와 고성능 컴

퓨팅, 저전력 시스템온칩 설계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과 인터커넥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고객사가 자체 XPU 설계를 미디어텍에 제공하면 연결 구조와 메모리, 패키징, 성능, 전력 특성 등을 각 AI 워크로드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맞춤형 AI칩 시장을 자사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AI 인프라 시장에서는 구급 등 빅테크와 클라우드 기업들이 범용 GPU뿐 아니라 특정 AI 연산에 최적화된 자체 칩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흐름에 맞서 자체 GPU만 공급하는 대신 외부에서 설계한 AI칩까지 엔비디아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생태계를 넓히고 있다.

NV링크 퓨전을 활용하면 고객사는 맞춤형 가속기를 개발하면서 연결 기술과 메모리 구조, 패키징 등을 처음부터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엔비디아와 미디어텍은 이를 통해 맞춤형 AI 인프라 개발 기간과 복잡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로밍 데이터 최대 20GB로 확대

‘함께 쓰는 로밍·하루종일 로밍’ 개편

KT가 해외 여행 고객을 겨냥해 로밍 상품을 전면 개편한다. KT는 로밍 대표 상품 ‘함께 쓰는 로밍·하루종일 로밍’을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해외여행 증가와 데이터 중심의 이용 패턴 변화에 맞춰 고객들이 보다 넉넉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가족·친구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함께 쓰는 로밍’ 상품은 데이터 제공량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3만 3000원 상품은 4GB에서 5GB로, 4만 4000원 상품은 8GB에서 10GB로, 6만 6000원 상품은 12GB에서 20GB로 늘어난다.

또한 장기 여행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용 기간도 확대한다. ‘함께 쓰

는 로밍’ 3만 3000원 상품과 Y 함께 쓰는 로밍 1만 9800원 상품의 이용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렸다. 장기간 해외에 머무르는 고객도 여행 기간에 맞춰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량 데이터 신상품 ‘함께 쓰는 로밍 40GB’도 출시한다. 가격은 7만 7000원이다. 만 34세 이하 고객을 위해 ‘Y 함께 쓰는 로밍’ 상품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다. 일반 로밍 상품 대비 요금을 40% 할인하고 데이터를 1GB 추가 제공한다.

/조민선 기자

LGU+, AI 에이전트 ‘품질·안전’ 잡는다

어라이즈 AI와 운영관리 체계 구축

LG유플러스가 글로벌 AI 운영 관리 기업 어라이즈 AI와 함께 안정적인 AI 에이전트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AI 활용 확대에 따라 AI 에이전트의 성능과 응답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오류와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에이전트의 성능과 응답 품질을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분석·관리하는 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어·음성 기반 AI 평가 기술 개발 협력 ▲AI가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답변을 생성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기술 협력 ▲국내 B2B 시장 공동 사업 기회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왼쪽)와 패트릭 켈리 어라이즈 AI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책임자가 서울 마곡 LG유플러스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AI 운영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고객을 위한 AI 서비스 고도화 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어라이즈 AI는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의 성능을 측정하고 오류를 분석하는 글로벌 AI 운영 관리 기업이다. 통신·금융·제조·유통 등 다양한 산업군 고객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품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카카오, 지역 AI 인재·기업 육성 본격화

부산서 ‘카카오 AI 돛 서밋 26’ 개최

카카오는 지역 AI 인재·기업 육성 추진 기구 카카오 AI 돛이 오는 29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카카오 AI 돛 서밋 26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업가와 스타트업 관계자, 학생, 개발자 등 약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카카오그룹의 인공지능 전환(AI) 사례와 최신 AI 기술 동향, 글로벌 기술 파트너의 솔루션 등을 공유해 지역 AI 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카카오 AI 돛은 카카오그룹의 기술·사

업 인프라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연구·기술 역량을 결합한 민간 협력 추진 기구다. 지역 AI 인재 육성과 창업,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컨퍼런스는 ‘미래를 향해, 가능성의 향해’를 주제로 진행한다. 카카오와 계열사의 기술 실무자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 기술 전문가, 지역 창업가, 학계 전문가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키노트에서는 카카오 AI 돛의 비전과 사업 방향, AI 인프라 등을 소개한다.

/최빛나 기자

현대차, 로봇·자율주행 기대 못 채워… 증권사 목표가 줄하향

증권사 6곳 잇달아 목표가 하향
증가는 두 달 새 고점 대비 반토막
본업 부진에 신사업 기대까지 후퇴
로보틱스 구체안 부재에 실망감 커져
하반기 신차 출시가 반등의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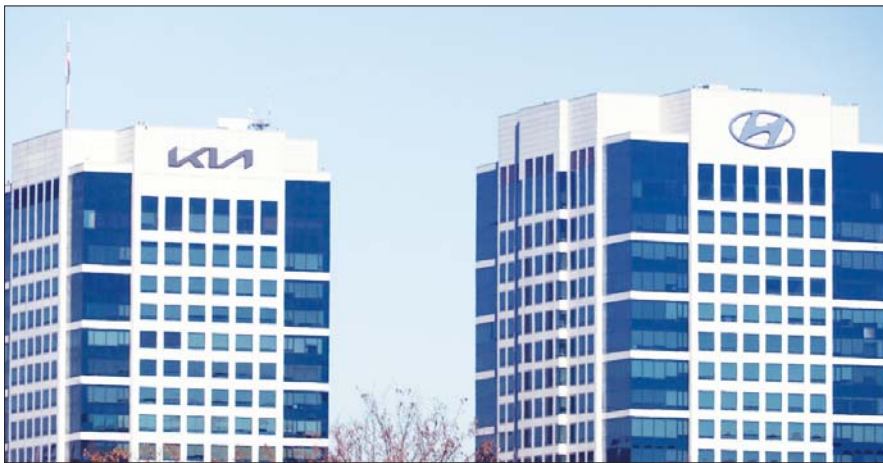
“주식시장의 기대가 높은 로봇 사업을 별도 자회사 형태로 진행하면서 밸류에이션 하락 우려. 목표주가 60만원으로 하향, 매수.”(삼성증권)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등 신사업 진행 속도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목표주가 62만원으로 하향, 매수.”(NH투자증권)

현대차의 적정 가치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8개 증권사 중 6곳이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하향하거나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대신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현대차증권 등 6곳은 7~8월 중 목표가를 11.6~33.7% 낮췄다. 한화투자증권은 6월 상향 이후 동결했고, iM증권은 8개월째 목표가를 바꾸지 않았다.

증가도 똑똑 떨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 주가는 1일 종가 기준 4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월 1일 기



현대차 양재사옥.

/메트로신문

록한 52주 최고가 75만원과 비교하면 46.7% 하락한 수치다. 두 달여 만에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빠진 것이다.

현대차를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본업인 자동차 시장 때문이다.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 등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 사업은 가치를 낮게 본다.

현대차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49조 2153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지만, 영업이익은 2조 85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감소했다.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30.8% 줄어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사 화제에 따른 생산 차질이 수익성을 끌어내렸고, 국

내 도매 판매도 16.4% 감소한 15만 7647대에 머물렀다.

하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의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사업은 성장성과 실적 가시성은 높지만 경쟁사 대비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진행 속도가 느리다”며 “신사업의 진행 속도를 고려해 중국 전기차 선도업체들의 2027년 평균 PER에 10% 할인율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6 CEO 인베스터 데이(CID)’에서 “더 많은 모델을 출시하고, 더 많은 파워트레인(동력전달) 선택지를 제공하며 신규 차

급과 신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겠다”며 “현대차는 피지컬 인공지능(AI)과 기술 기업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현대차 그룹 보스톤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관련해 진전된 사업 계획이나 비전은 제시되지 않았다.

김광식 교보증권 연구원은 “미국 중간선거 이전 행정부의 로보틱스 추가 정책 가시성이 높아진 뒤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회사의 의도로 판단되나, 높았던 시장 기대치 측면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현대차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보스톤다이나믹스 지분 9.65%도 사들이고 있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이 오를 계열사의 지분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현대차의 추가 지출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아틀라스의 공장 배치도 중장기적으로는 인건비 감축 효과를 기대하지만, 초기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전망이 공존한다.

주주환원 정책도 주가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대차는 CID행사 당일 기보유 자사주 251만주를 전량 소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2025~2027년 총주주환원율

35% 이상, 최소 주당배당금(DPS) 1만원, 최소 배당성향 25%, 분기 배당 2500원을 제시하며 기존 방향을 견지했지만 다음날 주가는 3% 하락 마감했다.

다만 올 하반기 베스트셀링(일정 기간 많이 팔린) 모델의 신차를 연달아 출시할 예정이라 실적이 개선될 거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판매량에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수 iM증권 연구원은 “2030년 영업이익률 목표를 종전 8~9%에서 9% 이상으로 상향했다”며 “하이브리드(HV) 판매 확대를 통한 손익 극대화와 전동화차(xEV) 규모의 경제 실현, 중장기 원가 절감 계획 등이 근거”라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자율주행이나 보스톤다이나믹스 개발 과정이 초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오히려 현대차 밸류에이션을 흔들던 논리였던 본업에서의 부진이라는 시장 우려를 일부 해소한 행사”라고 평가했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메리츠증권, ‘MOUM’으로 리테일 승부수

예탁자산 71조 7000억 두 배 성장
리테일 고객도 89% 늘며 외형 확대
무료수수료 종료 앞두고 락인 강화

“투자 의사 결정의 주체와 방식, 매매 방식, 투자 상품, 거래 환경이 모두 바뀌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투자자들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투자 플랫폼을 필요로 한다. 메리츠증권은 새로운 투자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가 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MOUM(모움) 론칭 행사’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장 대표는 기업금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중심이던 수익구조를 리테일로 확장하는 전략을 주도해 왔다.

MOUM은 메리츠증권이 약 1년 6개월간 준비한 플랫폼이다. 기존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MTS)의 주식 매매 기능에 투자정보와 글로벌 커뮤니티, AI 서비스를 결합해 투자정보 탐색부터 투자자 간 소통, 거래까지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메리츠증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가 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열린 메리츠증권의 ‘MOUM 론칭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권의 온라인 전용 종합 투자계좌인 Super 365를 연결하면 정회원으로 전환돼 주식 매매는 물론 보유 관심종목 관련 정보와 AI 분석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이 MOUM을 통해 겨냥하는 것은 단순한 거래 고객 확보를 넘어 고객의 투자 과정 전반을 플랫폼 안으로 유입시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증권사 리테일 시장의 경쟁이 거래 수수료 중심에

서 투자정보와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 고객 접점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존에 확보한 Super 365 고객을 MOUM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22년 말 온라인 전용 투자계좌인 Super 365를 출시했으며, 2024년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면서 리테일 고객 유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35조 4000억원이었던 메리츠증권의 리테일 예탁자산은 올해 상반기 기준 71조 7000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리테일 고객 수도 27만 8176명에서 52만 6567명으로 89.3% 증가했다.

다만 올해 말 수수료 무료 정책 종료를 앞둔 만큼 늘어난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메리츠증권은 MOUM을 통해 거래 수수료가 아닌 투자정보와 커뮤니티, AI 기능 등을 새로운 고객 락인(Lock-in) 요소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유튜브 ETF·고위험상품 광고 심사 의무화

금감원, 금융투자 광고 제도개선 간담회
CCO 심의 참여·뒷광고 사후관리 강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신규 상장지수펀드(ETF)와 고위험 금융상품 광고도 앞으로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받는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1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과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광고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선안은 광고 제작과 심사, 게시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ETF 광고 경쟁이 심해지고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이 확산하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금융투자회사가 외부에 제공하는

시황·업황 분석자료와 보도자료 등에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광고 심의에는 CCO가 참여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살펴야 한다. 유명인이나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에는 계약부터 심의·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점검표를 적용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는 ‘뒷광고’ 여부도 확인한다.

금투협의 심사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회사가 자체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하는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동영상 광고를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업계와 소비자단체·학계·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도 신설해 심사 기준과 주요 광고정책을 결정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ISA ‘5년 족쇄’ 없앴다… 납입한도 이월도 유지

일반 ISA 계약·납입 규정 현행 유지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막으려던 방안을 철회했다.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도 최대 계약기간을 없애고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한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

난달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ISA 개편안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세제 혜택 일몰기한은 모두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일반 ISA는 최소 가입기간이 3년이지만 최대 계약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총한도는 1억원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간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총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

입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금지할 계획이었다. ISA 세제 혜택도 2029년 말까지만 적용하는 일몰기한을 신설하려 했지만 모두 현행 유지로 돌아섰다. 정부는 수정 이유로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을 제시했다.

새로 도입되는 생산적금융 ISA의 혜택은 당초안보다 확대됐다. 계약기간은 최초 3년·최대 10년에서 일반 ISA와 동일하게 최초 3년·최대 제한 없음으로 바뀐다.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과 총한도 2억원은 유지하되, 사용하지 않은 연간 한도는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웨스턴에셋 한국 대표 거쳐 합류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은 1일 한국대표이사 사장으로 김인근 웨스턴에셋 한국 대표(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프랭클린템플턴의 한국 현지법인인 프랭클린템플턴투자자문을 이끌며 한국 사업의 전략과 운영을 총괄한다. 국내 조직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리더십과 협력해 고객 서비스 강화와 사업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웨스턴에셋자산운용 싱가포르 법인에서 6년간 한국대표를 역임한 뒤 이번엔 프랭클린템플턴에 합류했다. 자산운용 경력은 27년 이상이며, 아태지역 공



직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보험사, 주요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 고객 관리를 맡아왔다. 이전에는 블랙록자산운용과 한국은행에서도 근무했다.

김 대표는 “역동적이고 선진화된 한국 시장에서 앞으로 고객과 파트너사, 그리고 유능한 국내 팀과 함께 프랭클린템플턴이 쌓아온 탄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프랭클린템플턴은 공모·사모시장 전반에서 투자 솔루션과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다.

/허정윤 기자

부산항, 단순 기항지 넘어 ‘체류형 크루즈 거점’으로 도약

프랑스 포낭과 견고한 파트너십 확인
2030년까지 모항 3배 확대 계획
모나코 실버씨와 럭셔리 상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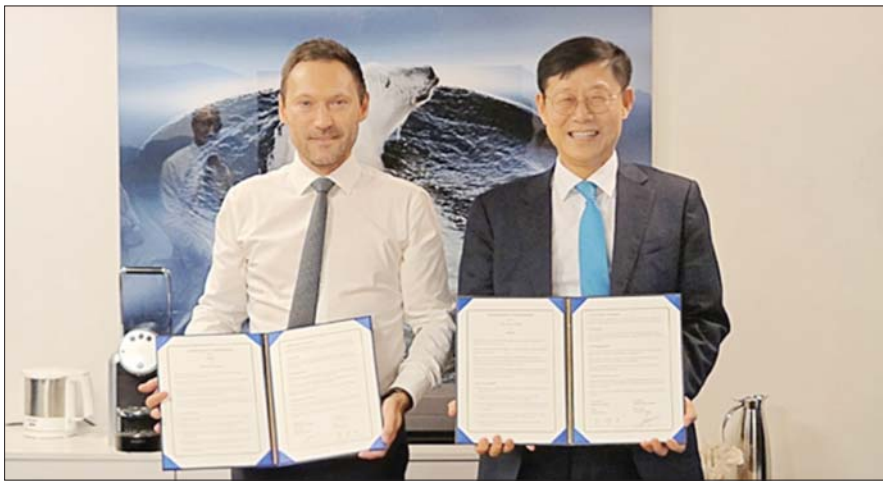
부산항만공사가 미주에 이어 유럽 본거지의 크루즈선사들과도 협력을 강화한다. 단순 기항지 입항이 아닌, 부산 모항 운항을 비롯해 ‘부산 체류형’ 럭셔리크루즈 운항 횟수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달 27~28일(현지시간) 기간 서부 지중해와 맞닿은 프랑스 마르세유와 모나코를 차례로 방문했다고 밝혔다. 럭셔리 크루즈선사 포낭(PONANT)과 실버씨(Silversea) 본사가 각각 위치해 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현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부산항 모항·오버나잇 등 체류형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낭은 올해 공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항공·철도를 연계한 모항 크루즈를 선보인 핵심 파트너다. 공사는 첫 운항의 성과를 중장기적인 부산 모항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로 이어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포낭은 올해 처음 4항자로 시작한 부산



송상근(오른쪽)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크루즈선사 포낭(PONANT)의 장 바티스트 보리에 총괄과 ‘부산 항공·철도 연계 모항크루즈 활성화 및 승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갖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모항 운항을 내년 6항차, 후년 9항차로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2030년까지 시범운항 첫해인 올해보다 3배 이상 항차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2027년과 2028년도 부산 모항 상품은 현재 포낭 누리집에서 판매 중으로, 부산 모항이 일회성 운항을 넘어 중장기 크루즈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올해 포낭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국내 최초 항공·철도 연계 크루즈의 경우, 서울과 부산을 하나의 크루즈 여행 일정

으로 연결했다는 호평을 받는다. 해외 관광객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서울을 관광하고 고속철도(KTX)를 이용해 부산으로 이동한 뒤 부산항에서 승선하는 방식이다.

마르세유의 포낭 본사에서는 장 바티스트 보리에 선대운영·신규프로젝트 총괄 등 경영진과 만나 부산 모항의 중장기 운항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운항 횟수 확대뿐 아니라 승객의 승·하선부터 터미널 이용과

를 높이기 위한 세부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또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향후 승·하선 절차와 터미널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부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모항으로서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모나코의 실버씨는 부산항에 지속적으로 입항해 온 로얄캐리비안 그룹의 대표 럭셔리 브랜드다. 앞서 공사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먼저 로얄캐리비안 그룹의 선대배치 담당 임원진과 아시아 선대전략에서 부산항의 역할을 논의한 바 있다. 실버씨 본사에서는 여정 기획·기항지 개발·항만 운영 등과 관련해, 주요 실무 책임자들과 오버나잇·준모항 확대 및 단계적 모항 발전방안을 협의했다.

실버씨와는 부산항 체류형 크루즈 확대와 크루즈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버씨의 부산항 입항은 올해 11항차에서 2027년 26항차로 두 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는 없었던 부산 오버나잇 일정도 내년 3항차를 새롭게 도입한다.

양측은 면담에서 럭셔리 크루즈 승객의 특성에 맞춰 승·하선부터 터미널 이용과

관광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편의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오버나잇 확대와 향후 모항 운항을 위해 필요한 단계별 개선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실버씨 측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춘 부산이 하루 일정에 그치지보다는 충분한 체류시간 확보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크루즈 관광상품을 보다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공사는 부산항의 24시간 운영 여건을 바탕으로 실버씨의 오버나잇 운항을 확대하고 체류시간의 충분한 확보가 가능한 일정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포낭의 부산 모항이 2030년까지 이어지고 운항 규모도 확대되는 것은, 부산항이 일회성 기항지를 넘어 크루즈 여행의 출발과 도착지로 성장할 가능성을 실제 시장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선사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실버씨의 오버나잇과 같은 체류형 크루즈를 지속확대해 모항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K-소비재, 中 유통사와 PB로 시장 공략

코트라, ‘중국 소매유통 파트너링’ 개최
상당 450건·계약추진 1000만달러

중국 소매유통 시장의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K-소비재가 기존 완제품 납품 방식을 넘어 현지 유통사와의 ‘PB(Private Brand·자체 브랜드) 공동개발’을 통해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일 중국 상하이 구베이 힐튼 호텔에서 중국 소매 유통시장 진출의 새로운 협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2026 중국 소매유통 파트너링 플라자(2026 China Retail Partnering Plaza)’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자체 등이 공동 주최하고 상하이시PB협회 등과 협업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뷰티·식품 분야 국내 유망 K-소비재 기업 80개

사와 알디(ALDI), 메트로(METRO) 등 중국 진출 글로벌 유통망 및 바이어 100개사 등 총 250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현장에서는 한중 소비재 파트너십 포럼, PB 파트너링 상담회, 전시 쇼케이스, 수출 컨설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총 450건의 수출상담을 통해 1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중국 유통사들이 한국 기업과의 PB 협력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현지 소매 유통 시장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중국 유통 시장은 유통 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거 단순한 ‘가성비’ 위주의 PB에서 ‘상품 고급화와 차별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유통 체인 샘스클럽(Sam’s

Club)의 경우 매장 내 PB 브랜드인 ‘멤버즈 마크(Member’s Mark)’ 비중이 전체 판매 상품의 약 30%를 차지하며, 유통 전문 미디어 역량동력에 따르면 현지 유통 공룡 허마 역시 PB 판매 비중이 50%에 육박한다. 유통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PB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 뛰어난 기획력과 고품질 제조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과의 ‘공동 개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코트라는 단순 완제품 수출을 넘어 중국 진출 글로벌 유통망의 상품 기획부터 공급망 관리까지 함께하는 PB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유통망 공동 PB 개발은 양국 기업의 협업을 기반으로 향후 제3국 시장으로 함께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반도체 수출 466억달러 ‘역대 최대’

산업통상부, 8월 수출입동향 발표
수출 982억·흑자 347억 달러 기록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이 지속되면서 8월 수출액이 3개월 연속 9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했다. 반도체 수출은 고대 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고부가제품의 폭발적인 수요와 가격 상승에 힘입어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7% 증가한 982억 5000만 달러(약 134조 4551억 원), 수입은 22.5% 증가한 635억 1000만 달러(약 86조 9452억 원)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8월 무역수지는 347억 5000만 달러(약 47조 4337억 원) 흑자를 기록해 3개월 연속 300억 달러 이상을 나타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72.5% 증가한 44억 7000만 달러로 4개월 연속 40억 달러를 상회했다. 올해 1~8월 누적 무역흑자 규모는 2025억 달러(약 277조 101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622억 달러나 폭증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 실적이 지난해 기록을 조기 돌파하는 것은 물론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봤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현재 8월까지 6933억 달러이고, 그다음 달(9월) 기준으로 보면 작년 실적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해 보인다”며 “연간 실적으로 보더라도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2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4개 품목의 수출이 대폭 늘었다. 수출 효과 종목인 반도체는 D램 고정가격 반등과 HBM 호조세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209.0% 폭증한 466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해 3개월 연속 400억 달러 고지를 밟았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기업용 SSD 등 컴퓨터 수출도 62억 4000

만 달러로 419.5% 경증 뛰었다. 무선통신 기기 역시 갤럭시 신제품 효과로 21.2% 증가한 18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제품(68.4억 달러, +65.3%)과 석유화학(38.6억 달러, +12.2%)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차전지(6억 달러, +24.0%)도 광물 가격 회복과 ESS 수요 증가로 4개월 연속 플러스를 썼다. K-콘텐츠 열풍에 입힘입어 바이오헬스(14.1억 달러, +22.3%), 화장품(13.1억 달러, +52.1%), 농수산식품(9.8억 달러, +1.5%) 등도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완성차 업계의 하계 휴가 시점 이동과 부분 파업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29.8% 감소한 38억 5000만 달러에 그쳤다. 선박 역시 인도 물량 감소로 45.9% 줄어든 16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조작으로 9월부터는 즉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곳에서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졌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320%)와 일반기계(+33%)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119.3% 급증한 241억 달러를 기록, 3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대미국 수출도 반도체(+300%)와 컴퓨터(+1040%)의 호조로 89.3% 증가한 165억 달러를 올렸다. 아세안 수출은 역대 8월 중 최대치인 190억 9000만 달러(+75.4%)를 기록했다.

김경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를 비롯해 주요 품목의 수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의 관세정책과 EU의 TRQ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 협력사 ‘자율 안전관리’ 강화… 우수 대표 19명 포상

주 1회 이상 직접 현장 방문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협력회사 경영진이 직접 현장 안전 관리의 전면에 나서는 자율 안전 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한전은 지난 8월 31일 충북 오송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에서 올해 2분기 동안 현장 안전 문화를 선도한 우수 협력회사 대표자 19명을 선정해 포상하고 격려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력사 대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곧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수준과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경영진이 실질적인 안전 책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지난 4월부터 ‘협력회사 대표자 현장 안전점검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이에



한국전력은 지난 8월 31일 충북 오송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에서 2분기 중 현장 안전 문화를 선도한 우수 협력회사 대표자 19명을 선정해 격려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조상욱 안전기술원 이사장, 오광해 전기공사협회 상근부회장, 이형주 전기공사협회 회장, 정지호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 김동민 한전 안전혁신단장, 강호송 한전 산업안전운영실장. /한전

따라 한전의 모든 협력사 대표자는 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직접 주관하고 위험요인을 즉시 조치하는 자율 안전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또 한전 각 사업소장과 협력사 대표가 월 1회 이상 심층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 개선책을 함께 논

의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은 이날 선정된 우수 대표자 19명에게 각각 50만 원의 자율 안전 실천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는 ‘자율 안전 선도 협력회사’ 현판을 수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극장 용
THEATER YONG
2026 THEATER YONG

LIVE QUEST MUSICAL

네 안의 숨겨진 요원을 깨워라!

예매하기
QR 스캔!



너의 선택이
이야기를
바꾼다

WHO
ARE
YOU?

라이브 퀘스트 뮤지컬
CODE NAME

코드네임



2026.

09.12 (토) - 10.18 (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국립중앙박물관 내)

LIVE, CHOICE, ADVENTURE

원작 강경수 주치·제작 NMF 국립박물관문화재단 OORACHACHA STORY 기획·홍보마케팅 주식회사 아트컴퍼니

예매 티켓링크, 인터파크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공연문의 02-766-9001

충남도 “지천댐 결정 존중… 청양·부여 미래도 책임져야”

“건설 필요성·대안 검토 과정 등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 마련”
도 자체 종합지원계획 추진 예정

충남도가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주민 이해와 공감을 위한 충분한 설명과 청양·부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지난 3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 관련 충청남도 입장’을 발표했다.

박 지사는 “충청남도는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천댐 건설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충분한 소통과 숙의가 먼저’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중립성을 강하게 요청했고, 그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왔다”며 “지난 27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가 결정을 내린 만큼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지사는 “결정”보다 더 중요한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지난 3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 관련 충청남도 입장을 발표했다.

것은 ‘설명과 공감’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지천댐이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 등 국가와 충청권 첨단산업에 하게 될 역할 ▲댐 건설에 따른 청양·부여 홍수 위험 감소 효과 ▲댐 건설 이외 대안과 비교·검토 결과 ▲공론화위원회의 자료 수집과 논의·판단 과정 등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비

로소 진정한 공론화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을 청양·부여 주민들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청양·부여에 댐을 짓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역의 미래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와 충청권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청양·부여에 그에 걸맞은 국가적 지원과 지역 발전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도는 정부에 ‘청양·부여 상생발전사업’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충남도 종합지원계획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 생활SOC 확충, 정주환경 개선, 주민참여형 소득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청양·부여의 새로운 발전 동력도 마련한다.

박 지사는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앞에 두겠다”며 “국가의 물을 담는 댐이라면 청양·부여의 미래까지 담는 댐이 돼야 한다. 국가의 필요로 시작된 사업을 청양·부여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천댐은 1991년과 1999년, 2012년에도 추진됐으나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현재도 지천댐 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와 충남도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교육청

AI 플랫폼 ‘펜즈’ 도입

부산시교육청은 클라우드·생성형 AI 서비스 통합 로그인(SSO) 플랫폼 ‘펜즈(PENZ)’를 1일 부산 지역 전체 초·중·고에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개별 계정을 따로 만들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한 시스템으로, 한번의 인증으로 구글·MS·어도비·캔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펜즈는 부산 교육망과 디지털 학습 도구를 합친 이름으로, 전국 교육청 중 처음 도입되는 통합 로그인 시스템이다.

민간 플랫폼 연계 방식으로 예산 약 4억 원을 들여 구축했으며 지난해 5월 한 고교 재학생의 제안에서 출발해 7~8월 시범 운영을 거쳐 전면 배포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칠곡군

할머니 래퍼 그룹 3주년 행사

칠곡군 할머니 래퍼 그룹 ‘수니와칠공주’가 창단 3주년을 맞아 지난 31일 칠곡군청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2024년 세상을 떠난 창단 멤버 서무석 할머니를 기리는 추모편지 낭독으로 시작해 케이크 컷팅, 랩 공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수니와칠공주는 2023년 8월 칠곡군 지천면 신4리에서 한글을 배우던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직접 쓴 글을 랩으로 부르며 KBS ‘인간극장’ 등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저출생 극복송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지역 행사 재능기부 공연 등에도 참여했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충원율 92% ‘역대최고’

국립창원대학교의 2026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이 92.19%로 집계돼 1969년 개교 이래 처음 90%대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전년도 88.1%보다 4%포인트 오른 수치다.

창원대에 따르면 올해 입학 정원 448명 가운데 413명이 최종 등록했다. 과장별로는 박사 과정이 정원 140명 중 130명 등록해 92.86%, 석사과정은 정원 308명 중 283명 등록해 91.88%를 기록했다. 특히 박사과정은 올해 정원을 지난해보다 10명 늘렸는데도 지난해 정원 기준으로 전원을 채웠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경주시, 지하수저류댐 사업 선정

218억 들어 용수 공급 시설 조성 하루 1만6000톤 규모 용수 공급

경주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 218억 원을 투입해 문무대왕면 용당리 대조천 일원에 하루 1만6000톤 규모의 용수 공급 시설을 조성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3개 지자체가 신청해 경주시를 포함한 3곳이 선정됐다. 사업은 연장 326m, 평균 심도 40m의 지하차수벽과 취수시설을 설치하며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입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대행한다.

시설이 완공되면 가뭄에 대응할 새로운 수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SMR 국가 산업단지와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양남 일반산업단지, AI데이터센터 등 동경주 지역 주요 미래산업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할 기반이 마련된다. 문무대왕면과 양남면의 급수체계를 조정해 갑포정수장의 공급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수저류댐은 하천 지하 모래·자갈층에 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의 흐름을 늦추고 물을 저장한 뒤 필요할 때 취수하는 시설이다.

경주시는 2024년 8월 정부에 사업을 건의한 뒤 주민설명회와 상세조사용역,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방비 일부를 도비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실시 설계와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2028년 1월 착공,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산청에 100억 들어 항공부품 공장 확충

산청군-울곡-경남도 MOU

산청군은 지난 31일 경남도청에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울곡, 경남도와 총 1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곡이 에어버스 A320 여객기 하루 날개 부품을 추가 수주함에 따라 금서 제2농공단지 내 항공부품 생산기지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곡은 이달부터 2028년 12월까지 금서 제2농공단지 1만7693㎡ 부지에 100억 원을 투입해 최첨단 항공기 부품 제조 공장을 증설한다. 산청군과 경남도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검토를 비롯해 각종 인허가와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산청은 한국항공우주 산업(KAI) 산청공장이 A320 계열 주날개 상단 패널



산청군은 지난 31일 경남도청에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울곡, 경남도와 총 1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청군

을 생산해 온 지역으로, 이미 항공부품 산업의 한 거점 역할을 해왔다.

울곡 역시 2012년부터 보잉·에어버스 등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와 협력 관계를 맺어 온 국내 대표 항공 부품 기업 가운데 하나로, 이번 증설로 산청의 항공 부품 생산 기반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 산림재건 본격화

산림경영특구 5곳 지정

경북도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재건과 산주·임업인의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산불 피해 5개 시·군에 ‘1시·군 1산림경영특구’ 지정을 완료하고 지역별 산림재건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난 31일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일원을 산림경영특구로 추가 지정·고시했다. 지난 3월 의성군(1호), 6월 안동시(2호), 7월 30일 영덕군(3호)과 청송군(4호)에 이어 영양군이 5호로 지정됐다.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에 근거해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산림경영특구는 단순 벌채·조립 중심의 복구



산불 피해지역에 지정된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산림경영특구 전경.

를 넘어 산림을 소득과 지역경제 기반으로 재건하기 위한 제도다. 특구에는 소득·경관수종 특화 조림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도 등 기반시설 확충, 임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등을 지원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포항서 만나는 AI·메타버스의 미래

‘AI·메타버스 영상제’ 개최

포항시가 경상북도와 함께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GAMFF)’를 개최한다. 올해 영상제에서는 AI 영상 상영과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AI·XR 기반 가상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추진된다.

올해로 3회째인 영상제는 포항·구미·경산 등 3개 도시의 특성을 AI 콘텐츠와 연계해 운영한다. AI 영상 공모전에는 전 세계 97개국에서 총 3,403편이 출품됐다. 포항에서는 ▲AI아트테크 어워즈 ▲GAMFF 영상 상영회 ▲AI 마스터클래스 ▲특별 GV ▲AI 마

술쇼 ▲AI 체험존 등이 진행된다.

4일 오후 7시 열리는 ‘AI 아트테크 어워즈’는 오후 5시 30분 레드카펫을 시작으로 배우 원기준, 민우혁, 김성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AI와 시각특수효과(VFX)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국내의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GAMFF 그라운드’에서는 AI 포토부스, AI 캐리커처 캔버스 제작, AI 영상 제작, NFC 키팅 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다. 4일 오후 3시 30분에는 전지현·구교환 주연의 영화 ‘군체’, 5일 오후 12시에는 유해진·박지훈 주연의 ‘왕과 사는 남자’를 무료 상영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영양고추유통공사

GAP 인증 우수사례 수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한 2026년 제12회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양고추유통공사(영양고추GAP작목반)는 생산 부문에서 수상했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과정까지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로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현장의 모범 사례를 찾아 인증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양고추유통공사(영양고추GAP작목반)는 인증을 활용한 고품질 고추 생산관리와 저탄소 농업 실천을 주요 내용으로 사례를 제시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착한 기업 응원해야”… 애국·보훈활동 등 가치소비 이어져

소비자, 기업 역사·진정성 주목
참전용사 후원 활동 등 재조명
“지속 가능한 나눔, 경쟁력 부상”

제품의 스펙이나 가격 경쟁력만을 따지던 과거와 달리, 기업의 궤적과 사회적 책임, 고유한 브랜드 철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지를 보내는 이른바 ‘가치 소비’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광복절을 계기로 보훈 및 사회공헌에 꾸준히 공을 들여온 기업들이 재조명받으면서 이들의 진정성에 응답하는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 ‘애국 종목’ 한성기업·모나미

25년간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영웅을 위한 음악회’를 후원해 온 한성기업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착한 소비’ 및 구매 인증 바람이 불었다. 응원 열기는 단순 제품 구매를 넘어 주식 매수세로까지 연결됐다.

모나미 역시 마찬가지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 국면 당시 일제 필기구를 대체할 대표 국산 브랜드로 각인되었던 역사와 ‘토종 브랜드’라는 상징성이 재조명됐다. 두 기업은 이른바 ‘애국 종목’으로 입



BP153 광복 81주년 에디션



/모나미 ‘대한의 가장 빛나는 여권’ 특별전.

/빙그레

소문을 타며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크게 요동치기도 했다.

◆ 빙그레가 보여준 보훈 진정성

단발성 기념일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행보를 꾸준히 이어온 기업을 향한 대중의 박수도 이어지고 있다. 빙그레는 매년 차별화된 광복절 캠페인과 장학 사업으로 보훈의 가치를 상징하는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올해 광복절에는 국가보훈부, 외교부와 손잡고 타국에서 눈을 감은 독립유공자 30인을 기리는 ‘대한의 가장 빛나는 여권’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이국땅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들에

게 명예여권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은 공개 보름 만에 조회수 1100만 회를 돌파하며 깊은 울림을 전했다.

빙그레의 이 같은 기획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시작으로, 학생 독립운동을 조명한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식’ (2023년), AI 기술로 옥중 순국 선열의 모습을 되살린 ‘처음 입는 광복’ (2024년), 만세 합성을 복원한 ‘처음 듣는 광복’에 이르기까지 매년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전달해 왔다.

◆ 한세실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문의 역사와 선대의 독립 정신을 현

대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승화시킨 한세실업의 사례도 눈길을 끈다. 한세실업은 4대에 걸쳐 내려오는 ‘보국’의 끈을 이어가며 독보적인 기업 정체성을 다져왔다.

영화 ‘말모이’의 모티브가 된 조선어학회 사건 당시, 우리말 사전 편찬과 기관지 ‘한글’ 발간을 뒷받침했던 핵심 인물이 바로 한세실업 창업주 김동녕 회장의 외조부인 ‘남저 이우식’ 선생이다. 1919년 의령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대는 등 평생을 바친 이우식 선생은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이 정신은 한세실업 김동녕 회장으로 이어져 한세에스24문화재단 설립과 의당

치폴레, ‘강남점’ 공식 오픈… “최상의 외식경험 제공”

국내 첫 매장이자 아시아 1호점
“외식 시장에 새로운 기준 제시”

미국을 대표하는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 Chipotle Mexican Grill(치폴레)가 한국을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선다. 한국 운영사 에스앤씨레스토랑홀딩스(S&C Restaurants Holdings Pte. Ltd., 이하 S&C)는 2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 치폴레의 국내 첫 매장이자 아시아 1호점인 ‘치폴레 강남점’을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치폴레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해 ‘Food with Integrity(진정성 있는 음식)’를 브랜드 핵심 가치로 내세워 성장해 온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다. 고객이 원하는 재료를 직접 선택해 메뉴를 구성하는 커스터마이징 방식과 매일 매장에서 식재료를 준비하는 운영 원칙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외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1일 치폴레 한국 1호 강남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허희수 상미당홀딩스 CVO(최고비전책임자)가 한국 시장 비전과 사업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상미당홀딩스

한국은 치폴레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국가다. 특히 첫 해외 합작법인(JV) 형태로 추진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S&C는 상미당홀딩스 계열사인 박바이트컴퍼니와 치폴레가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박바이트컴퍼니는 셰

이크쉐, 잠바 등 글로벌 외식 브랜드를 국내에서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싱가포르 지역의 치폴레 사업권을 확보했다.

출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치폴레는 연내 국내에 2개 매장을 추가로 선보여 총 3개 매장까지 운영 규모를 늘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싱가포르 첫 매장 오픈을 통해 아시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메뉴와 주문 방식은 미국 현지 매장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한다. 고객은 카운터를 따라 이동하면서 부리토, 부리토 볼, 타코, 샐러드, 퀘사디아 중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다양한 재료를 취향에 맞춰 조합할 수 있다.

허희수 상미당홀딩스 CVO(Chief Visionary Officer, 최고비전책임자)는 “좋은 재료와 진정성 있는 음식을 통해 전 세계 고객들에게 사랑받아 온 치폴레를 국내에 선보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치폴

레의 진출은 단순히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국내 고객들에게 새로운 외식 경험과 문화를 제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폴레가 오랜 기간 지켜온 품질 기준과 브랜드 철학을 한국에서도 충실히 구현하는 동시에 국내 고객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외식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콧 보트라이트(Scott Boatwright) 치폴레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경영자)는 “아시아 시장에서는 다양한 메뉴 선택권과 편의성, 신선한 음식을 빠르게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 수요가 높아 치폴레에게 상당한 성장 기회가 있다”며 “그중에서도 한국은 아시아 사업을 시작하기에 이상적인 시장으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역시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화점 ‘더 프레젠테이션’ 라벨 아트 콜라보 와인 판매

롯데백화점이 10월 22일까지 잠실점 6층 아트홀에서 심문섭 작가의 개인전 ‘투더 아일랜드(To the Island)’를 개최한다.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슈발리에’를 받은 심 작가의 회화 연작을 전시한다.

전시 기간에는 심 작가의 대표작 ‘더 프레젠테이션(The Presentation)’을 라벨에 적용한 ‘아트 콜라보 와인’을 3500병 한정 판매한다.

올해 아트 와인은 ‘파리의 심판’ 50주년을 기념해 프미크 아비의 카베르네 소비뇽 2021’과 ‘샤르도네 2024’로 구성했다. 전시와 연계한 미식 콘텐츠도 운영한다. 잠실점 레스토랑 ‘더페어링’에서는 전시 기간 심 작가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섬’에서 영감을 얻은 ‘심문섭 고메코스’를 선보인다. 메인과 디저트를 포함한 6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김서현 기자 seoh@

CJ제일제당, 신선식품 등 추석 선물세트 라인업 확대

IP 협업 상품 등 260종 출시

CJ제일제당이 올해 추석 선물세트 품목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가공식품 중심이던 상품군을 과일·축산 등 신선식품으로 확대한다. 프리미엄 참치와 미식 제품, 캐릭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상품도 선보이며 명절 선물 수요 변화에 대응한다.

CJ제일제당은 올해 추석을 맞아 총 260종의 선물세트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실보다 약 50종 늘어난 규모다. 기존 스텝 중심의 복합세트 외에도 수산물과 신선식품, 프리미엄 제품, IP 협업

상품 등으로 카테고리를 다변화했다.

수산물에서는 프리미엄 참치 브랜드 ‘칼보(Calvo)’를 앞세운 선물세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칼보 해바라기유 참치와 올리브오일 참치로 구성된 단독 세트와 스텝과 칼보 참치를 함께 담은 복합세트 등을 마련했다. CJ제일제당은 향후 참치 등 수산물 선물세트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선식품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CJ제일제당은 신선식품 선물 브랜드 ‘본담’을 새롭게 선보였다. “좋은 것을 가려 담아, 선물의 본질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로, CJ제일제당이 상품을 기

확하고 전문 유통 파트너와 협업해 상품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번 추석에는 사과와 배 등 과일 4종과 축산 4종을 중심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했다. 지난해 설 CJ더마켓에서 신선 선물세트를 운영하며 축적한 상품 및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정식 론칭했다는 설명이다.

젊은 소비자를 겨냥한 IP 협업도 확대한다. 카카오톡과 포켓몬 등 인기 캐릭터를 스텝 선물세트에 적용해 기존 식품 중심의 명절 선물과 차별화했다. 포켓몬 협업 세트는 이마트와 CJ더마켓, 카카오톡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한다. 소비자

가 스티커로 패키지를 꾸밀 수 있도록 했으며, 온라인 구매 고객에게 포켓몬 키링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프리미엄 제품군도 강화했다. 프리미엄 미식 선물 브랜드 ‘르구테르(Le Gouter)’는 올리브유 ‘노블레자 에코데이’ 등을 중심으로 제품 구성을 확대했다. 해외 미식 제품을 선별해 선보이는 브랜드 특성을 활용해 산지와 제품 특성이 차별화된 상품으로 프리미엄 수요를 공략한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를 위한 복합 세트 구성도 손봤다. 스텝에 런천미트, 요리용, 조미료 등을 조합해 가격 부담을 낮추면서도 선물세트의 구성을 풍성하게 했다. 가격대와 판매 채널에 따라 달랐던 복합세트 브랜드와 패키지도 통일해 제품 식별성을 높였다. /신원선 기자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아침 식사부터 지역상생까지… 버거업계, 고객잡기 ‘총력전’

맥도날드가 연 조식시장 경쟁 가열 롯데리아·버거킹 모닝 매장 확대

지역 농산물 활용 상생사업 강화 걷기·러닝 행사로 고객접점 넓혀 매장 밖 고객 확보전도 본격화

버거 하나 파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바쁜 아침을 책임지는 모닝 메뉴부터 농가와 동반 성장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에 이르기까지 버거 프랜차이즈들의 경쟁 무대가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맥도날드가 선제적으로 구축한 사업 모델을 롯데리아, 버거킹 등이 뒤따르면서, 카테고리별로 유사한 전략을 앞다퉈 펼치는 님은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불붙은 ‘모닝’ 대전

한국맥도날드는 2006년 ‘맥모닝’을 출시하며 외식 시장의 아침 카테고리를 개척했다. 맥모닝은 업계 최초 타이틀을 앞세워 조식 시장을 장기간 주도해 온 스테디셀러다. 출근길 직장인과 대학생 등을 타겟으로 한 맥모닝은 맥도날드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강력한 고객 로킹 효과를 내고 있다. 맥도날드는 지난 6월에도 구운 닭가슴살 패티를 활용한 ‘그



지난 5월 24일 인천 문학경기장 주경기장 내부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2026 맥도날드 해피워크’ 참가자들의 모습. /한국맥도날드

릴드 차킨 모닝 버거’와 ‘더블 그릴드 차킨 모닝 버거’를 라인업에 추가하는 등 꾸준한 메뉴 개편으로 맥모닝의 경쟁력을 다지고 있다.

후발주자들도 조식 시장을 공략하고 나섰다. 롯데리아는 2022년 대표 버거의 특색을 살린 아침 전용 메뉴 ‘리아모닝’을 선보였다. 주로 직영점 중심으로 운영하던 리아모닝 매장 수를 최근 크게 늘렸다.

2014년 ‘킹모닝’을 선보였던 버거킹은 올해 7월 아침 메뉴 전면 개편에 나섰다.



버거킹의 ‘아침됩니다’ 캠페인. /버거킹코리아

모닝 메뉴 판매 매장을 기존 대비 2배 이상(120여 개 매장)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히트 메뉴인 크루아상위치 3종을 새로 내놓는 등 라인업을 강화했다. 동네 백반집 간판을 본뜬 ‘아침 됩니다’ 캠페인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매장 넘어 지역으로

ESG 경영이 핵심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버거 프랜차이즈들도 지역 상생에 힘을 쏟고 있다. 맥도날드는 2021년부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한국의 맛’ 프로젝

를 매년 선보이고 있다. ▲창녕 갈릭 버거(2021)를 시작으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2025) ▲진주 고추 크림치즈 버거(2024)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2023) 등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한정판 메뉴를 출시했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맛 시리즈는 누적 판매량 3000만개를 넘어섰고 국내산 식재료 수급량도 1000t을 돌파했다.

롯데리아 역시 지역 상생을 브랜드 전략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2022년 시작한 ‘롯데리안길’은 각지의 숨겨진 맛집을 발굴하고 전국 롯데리아 매장에서 소개하는 프로젝트다. ▲진해 ‘쥬포 튀김’ (2025) ▲서울 ‘우이락 고추튀김’ (2024) ▲청주 ‘매운만두와 미친만두’ (2023) 등을 상품화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귀농 청년들의 정착과 영농을 돕기 위한 ‘청년농부 상생 선순환 프로젝트’도 전개하고 있다. 롯데리아는 청년농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해 ‘못난이 치즈 감자’, ‘김치불고기버거’ 등을 출시했다. 지난 5월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농산물 운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충남 지역 청년농부를 대상으로 물류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액티비티, 브랜드 경험이 되다

대규모 야외 행사를 통해 브랜드 경험을

매장 밖까지 확장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2024년 ‘패밀리 워킹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걷기 기부 행사를 이듬해 ‘해피워크’로 정례화했다. 참가비 전액은 중증 환자 가족을 위한 비영리단체 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RMHC)에 기부한다. 2024년 3000명이던 참가 규모는 지난해 5000명, 올해는 6000명까지 늘었다.

롯데리아는 오는 10월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총 2000명 규모의 대형 러닝 페스티벌인 ‘2026 리아는 배불린’을 개최한다. 햄버거 모양으로 조성한 5km 코스를 달리는 러닝 페스티벌로, ‘버거 성향 테스트’, ‘배불리스타’, ‘감튀맨’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로 꾸린다.

버거 프랜차이즈들이 비슷한 궤적을 그리는 이유는 차별화의 무대가 ‘제품’에서 ‘경험’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메뉴나 가격 할인만으로는 고객을 붙잡기 어려워진 만큼, 일상 곳곳에 브랜드를 심는 전략이 필수가 됐다.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새 영역을 개척하는 리스크보다 선두 주자가 이미 확인한 성공 공식을 빠르게 따라가려는 경향도 님은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metro

첫 전용 신용카드로 충성고객 공략

지그재그, 신한카드와 PLCC 출시 결제액 15% 적립·생활혜택 확대

지그재그가 첫 전용 신용카드를 출시하며 소비자 혜택 강화에 나선다.

카카오스타일은 지그재그가 신한카드와 협업해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인 ‘지그재그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그재그 신한카드는 지그재그 결제 시 이용 금액의 15%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된다.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2만 포인트까지 쌓을 수 있다.

생활 밀착형 혜택도 더했다. 카페(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백화점, 마트, 먼

세점, 카카오톡 이용 시 10% 적립을 제공한다.

출시 기념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9월 한 달간 지그재그 결제 적립률을 최대 20%(월 한도 3만 포인트)로 확대 운영한다. 발급 후 지그재그페이 등록 첫 결제 시 3만 원 즉시 할인과 함께 직진배송 중복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카카오스타일 관계자는 “카드 출시를 통해 충성도가 높은 고객층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결제 편의성 등 앱 이용 경험 개선을 위해 힘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던스트, 서울패션위크서 첫 패션쇼

가을·겨울 50여개 룩 공개

런칭 7년 차를 맞은 밀레니얼 캐주얼 브랜드 던스트가 도심 한복판에서 런웨이를 선보인다.

LF는 던스트가 오는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월드파크에서 열리는 서울패션위크에 참여해 브랜드 첫 패션쇼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쇼는 현장에서 가을·겨울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SEE NOW, BUY NOW’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날 던스트는 90년대의 간결한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50여 개의 룩을 공개한다.

▲트렌치코트 ▲블루종 ▲초어 재킷 ▲맥 코트 ▲블레이저 ▲니트 등 가을·겨울 상품을 선보인다. 전반적인 색감은 브라운·키멜·키기 등 따뜻한 뉴트럴 톤에 버건



던스트 26FW 캠페인 화보. /LF

다·플럼·핑크·올리브 등으로 조합했다.

쇼 연출 키워드는 ‘REAL STREET SCENE’으로, 도심 속 일상의 모습을 런웨이에서 구현한다.

또한 관계자 위주로 참석했던 전통적인 패션쇼 형식에서 벗어나 쇼의 일부 좌석을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한다.

/김수정 기자

아이더, 장원영 앞세워 중국 점점 확대

국내 이어 中 앰버서더 발탁 하반기 장춘·연길 매장 확대

아이더는 국내에 이어 중국에서도 장원영을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했다고 1일 밝혔다.

아이더는 장원영이 지닌 감각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가 브랜드가 지향하는 도전적 가치와 어우러진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장원영을 통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상해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며 중국 시장에 진출한 아이더는 현재 상해와 길림 등에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장춘, 연길 등으로 오프라인 진출 지역을 늘려 독자적인 아웃도어 정체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아이더 조두희 마케팅팀장은 “장원영의 글로벌 영향력과 콘텐츠 파급력을 바탕으로



아이더 국내·글로벌 앰버서더 가수 장원영. /아이더

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아이더가 지향하는 새로운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맘스터치, ‘귀멸의 칼날’ 팬덤 소비 잡는다

한정판 컬래버 세트 2종 선보

맘스터치가 글로벌 애니메이션 IP와 손 잡고 협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맘스터치는 영화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재개봉에 맞춰 팬 상품을 포함한 한정판 컬래버 세트 2종을 오는 28일까지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협업 상품은 작품의 상징적인 요소를 활용해 입체적으로 구현했다. 개폐가 가능한 구조에 터치식 조명을 더한 LED 아크릴 스탠드 세트’는 후라이드빅싸이슨 살, 싸이버거, 콜라를 함께 제공한다.

메탈 소재로 캐릭터의 상징성을 표현한 ‘메탈 일련도 커링 세트’는 싸이버거,

더블불고기버거, 감자튀김, 콜라로 구성했다.

최근 유통·외식업계에서는 캐릭터 IP가 소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마케팅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맘스터치는 로스트아크, 원신 등에 이어 귀멸의 칼날과도 협업을 이끌어내 팬덤 소비층을 공략하고 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완성도 높은 굿즈를 통해 팬들이 작품의 여운을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품질의 한정판 굿즈를 함께 즐기며 작품의 여운을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K플라즈마

레볼팍 75mg 국내 공급 고용량 복약 부담 완화

SK플라즈마가 저혈소판증 치료제 ‘레볼팍’의 용량 라인업을 확대하며 고용량 투여 환자의 복약 부담을 줄인다. SK플라즈마는 지난 8월 레볼팍 25mg·50mg을 출시한 데 이어 고용량 품목인 ‘레볼팍 75mg’의 국내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레볼팍은 엘트롬보팍올라민 성분의 저혈소판증 치료에 적응증을 지닌 전문의약품으로 국내에서 75mg 함량 제품이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엘트롬보팍올라민은 골수에서 혈소판 생성을 촉진해 혈소판 수를 늘리는 기전을 지닌 성분으로 ▲만성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 등에 사용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유한양행

혁신신약 공동연구 확대

케이메디허브와 개발 협력

유한양행이 신약 R&D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 신약개발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과 ‘혁신 신약과 이프라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유한양행의 신약개발 역량과 케이메디허브가 보유한 첨단 신약개발 연구 인프라 및 기술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특히 유망 신약 후보물질의 공동 연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동 과제 발굴 및 수행, 우수 연구인력 교류, 연구 시설 및 첨단 장비 등 상호 기술지원, 의료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협력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HUFS

Where Global Insights Meet
AI Innovation



융합일본지역학부
서인호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김예희

AI를 활용하였습니다.

미래를 여는 한국외대의 트리플 시너지



송도캠퍼스 신설학부 모집

- 글로벌바이오 & 비즈니스융합학부
- 외국인자유전공학부

입학안내

02-2173-2500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D현대, 네팔 호우 피해현장 복구 지원

HD현대가 홍수로 피해를 입은 네팔의 복구를 돕기 위해 건설장비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HD현대는 네팔 중 북부 바그마티주에 중형 굴착기 20대와 구호물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물품은 담요와 식기, 위생용품, 방수포 등으로 구성됐다. /HD현대



LG생활건강, '2026 그린벨류 유스 캠프' 성료

LG생활건강은 지난 8월 28~29일 강원도 강릉에서 청년 대상 환경 프로그램 '2026 그린벨류 유스 캠프'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청년들은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나누며 토론했다. 또 강릉 옥계해변에서 해양 쓰레기를 줍는 등 해변 정화활동도 진행했다. /LG생활건강



스마일게이트, 지역아동센터에 새활용 우산 기부

스마일게이트는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새활용 우산 83개를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스마일게이트의 조직문화 프로그램인 '톡톡킵'을 통해 마련됐다. 연합회는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약 1400명의 아동을 위해 우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스마일게이트



세브일레븐-경희대, 교육·연구 과정 마무리

세브일레븐은 지난해 8월 경희대학교와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두 차례 진행한 교육·연구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학생들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편의점 운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안을 연구했다. /세브일레븐

경희대 미술대학 60주년 전시

경희대학교 미술대학의 60년 예술사가 거장부터 신진작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 138점의 전시로 다시 펼쳐진다.

경희대 미술대학은 설립 6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교내 미술관 KUMA 1~4층 전관에서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설립 60주년 기념: TIME ARCHIVE 60, 다시 선언하다'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1966년 설립 이후 경희대 미술대학이 쌓아온 예술적 성과와 교육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직 교강사와 명예·석좌교수, 동문 작가, 학부·대학원 재학생 등 138명이 참여한다. /이현진 기자 ihj@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 인간 중심 디자인 비전 제시

디자인 마이애미 서울

전시 주제 '디자인은 사랑의 표현' OLED TV에 14개 아트웍 담아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과 예술을 결합한 전시를 통해 제품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오는 6일까지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리는 글로벌 디자인 행사 '디자인 마이애미 서울 2026'에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디자인 마이애미는 세계 각국의 갤러리와 디자이너, 브랜드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디자인 행사다.

이번 전시 주제는 'Design is an Act of Love(디자인은 사랑의 표현)'다. 삼성전자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출발하는 '인간 중심' 디자인 비전을 전시 전반에 담았다.

전시에는 한국 아티스트 14팀이 참여한다. 이들은 ▲뮤직 스튜디오 5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갤럭시 Z



'디자인 마이애미 서울2026' 삼성전자 전시관.

/삼성전자

폴드8 등 삼성전자의 14개 제품을 각자의 경험과 시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와 이미지로 재해석했다.

일부 아티스트는 작품을 구상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했다. 아티스트 고유의 시각과 창의성을 작품의 출발점으로 삼되 AI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표현 영역을 넓히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아티스트들이 완성한 14개 아트웍

는 삼성전자의 2026년형 플래그십 OLED TV 'SH95'를 통해 선보인다. 각각 다른 소재와 형태로 제작된 14개의 커스텀 프레임은 TV에 적용해 하나의 제품을 서로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는 '익스프레시브 디자인(Expressive Design)'을 구현했다.

SH95에는 화면이 메탈 플레이트 위에 떠 있는 듯한 '플로트 레이어 디자인(Float Layer Design)'이 적용됐다. 화

아시아나, 日 고베 신규 취항… 한일 관광수요 대응

낮 12시 출발… 주 7회 운항

아시아나항공이 일본 고베 노선에 신규 취항하며 한일 관광 수요 확대 대응에 나선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오사카 중심의 간사이 지역 항공 수요를 고베까지 확대해 여행객들의 선택지를 넓혀겠다는 전략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일부터 인천~고베 노선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주 7회 매일 운항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낮 12시 출발해 고베공항에 오후 2시 도착하며, 귀국편은 고베공항에서 오후 3시 출발해 인천공항에 오후 5시 도착한다. 운항 기종은 차세대 단거리 주력기인 에어버스 A321NE

O가 투입된다.

고베는 오사카와 교토 등과 함께 간사이관광권을 형성하면서도 온천과 역사, 미식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갖춘 도시다. 아리마 온천과 세계문화유산 히메지성, 고베 포트타워와 하버랜드 등이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고베규와 고베 푸딩 등 미식 콘텐츠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신규 취항은 일본 여행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의 미가 있다는 평가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방한 일본인뿐 아니라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 전반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일본은 가까운 거리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앞세워 대표적인 해외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엔화 약세와 지역 관광 콘텐츠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일본 지방도시로 여행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일본인 해외여행객 4명 중 1명 이상이 올해 한국을 찾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인의 해외여행 목적지가 한국으로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인기 여행지인 고베 노선을 신규 취항함으로써 간사이 지역 여행객들의 다양하고 편리한 여행 구성이 가능해졌다"며 "새롭게 열린 고베 노선의 안정적인 운항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한일 노선 경쟁력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미술관, '프리즘, 일렁이는 무한' 개막

김용관·김진희 등 3040 작가 참여

포스코미술관이 한국 현대미술을 이끄는 3040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포스코미술관은 기획전 '프리즘, 일렁이는 무한'을 오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 다양한 색으로 나뉘는 모습에 착안해 예술적 상상력이 확장되는 과정을 조명한다. 김용관·김진희·송주형·신준민·

윤이도·진종환·한낮 등 3040 작가 7인이 참여한다.

김용관은 포스코센터 유리 외벽을 활용해 빛과 구름의 흐름을 시각화한다. 김진희는 일상에서 포착한 빛을, 송주형은 영상과 사운드를 결합한 공간을 선보인다. 신준민은 기억과 실재가 겹치는 풍경을, 윤이도는 이쑤시개를 활용해 사라져가는 공간을 표현한다. 진종환과 한낮은 각각 자연의 변화와 햇살을 색채와 사진으로 담았다.

전시 개막일인 2일에는 포스코그룹

이 소장한 백남준·구보타 시게코의 '철이철철'(1995) 복원 완료를 기념하는 특별 공연도 열린다. 백남준 서거 20주기를 맞아 전자음악 아티스트 뿌레카(BBUREKA)와 미디어 아티스트 송주형이 협업한다.

포스코미술관은 이날 강남구 주요 갤러리·미술관이 참여하는 '정답나잇'과 연계해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한다. 포스코그룹 직원으로 구성된 도슨트 봉사단도 전시와 주요 소장품을 해설할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롯데百貨, 영등포역사 상업시설 운영권 확보

최소 10년간 안정적 영업 가능

롯데백화점이 서울 영등포역사 상업시설의 운영권을 다시 따내며 향후 최소 10년간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가게 됐다. 장기 운영권을 확보함에 따라 그동안 계약 기간 한계로 미뤄졌던 대규

모 리뉴얼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일 국가철도공단은 이날 오전 영등포역사 사용허가를 위한 신규 사업자 모집 4차 공개입찰의 개찰을 완료하고 롯데백화점(롯데쇼핑)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공단은 올해 2월부터 영등포역사 신규 사업자를 찾기 위해 세 차례

에 걸쳐 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4차 입찰에서 롯데백화점이 단독 응찰하며 최종 사업자로 낙점됐다. 4차 공모 지침서 기준 예정 입찰료는 최초 입찰가(약 287억 원) 대비 20% 낮아진 229억6000만 원이다.

이번 낙찰로 롯데백화점은 안정적인 영업 환경 속에서 대대적인 점포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김서현 기자 seoh@

면의 경계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기존 TV 디자인에서 나아가 제품의 구조와 소재 자체를 조형적 요소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TV가 단순한 시청 기기를 넘어 공간을 구성하는 디자인 오브제로 기능하도록 했다.

오는 3일 열리는 디자인 토크에는 삼성전자 DX부문 최고디자인책임자(CDO) 마우로 포르치니 사장이 참여한다. 포르치니 사장은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인간 중심 디자인 철학과 AI 시대 디자인의 역할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마우로 포르치니 사장은 "Design is an Act of Love"는 디자인이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우리의 원칙"이라며 "삼성전은 앞으로도 인간 중심의 다양한 디자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한림대학교 의료원 이재준 의료원장 취임

이재준 한림대학교

교천천성심병원장이

제21대 한림대학교

의료원장 겸 의무부

총장(사진)으로 취임

임해 한림대학교 의

료원 5개 병원의 진료·연구·교육 시너

지 창출과 미래 의료 도약을 이끈다.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제21대 한림의

료원장에 이재준 한림대천성심병원

장이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8년 8월 31일까지다.

이재준 신임 의료원장은 2000년 한림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에서 석사, 강원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6년부터 천성심

병원장을 맡아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의

료 질 향상, 연구역량 확대를 이끌었다.

이재준 신임 의료원장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병원 경영 역량을 바탕

으로 산하 5개 병원의 강점을 하나로

모으고, 진료·연구·교육 분야의 협력과

시너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사 ◆**감사원** △미래전략감사국장 전형철 △심사관리관 김택현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김찬수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직위승진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기획개발과장 최영기 △국립종자원 문경덕 △국외훈련 연장(영국, University of Sheffield) 정재원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 진승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 실장 송주빈

◆**호서대학교** △특임부총장 이종원

부음 ▲최길순씨 별세, 이형희(SK㈜ 부회장)씨 장모상 = 1일 별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3일. 02-923-4442.

▲강순덕씨 별세, 김정호(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씨 모친상 = 1일, 광주 VIP장례타운 VVIP 101호, 발인 3일. 062-521-4444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2026년 9월 16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주 제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일 시 2026년 9월 16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도보 3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최승재 중소기업 오부즈만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40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 미래모빌리티 G3 혁신전략
	14:40~15:10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 변화, 혁신, 그리고 물류
강 연	15:10~15:40	김병우 대동그룹 개발부문장 전무 : 농업 모빌리티의 AX 및 GX 현황
	15:40~16:10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 New Commerce에 대응하는 물류
	16:10~16:40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 : 자율주행이 바꿀 한국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 -부산항 수출화물에서 미국 대륙횡단 왕복 노선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돌봄 쓰나미’ 오는데 불감증에 빠져 있다



전 용 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한국의 노인돌봄에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노인으로 진입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급증할 것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위기가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외로움과 질병 속에서 삶을 포기하는 노인이 늘고, 가족 돌봄 부담이 극단으로 치달아 간병살인과 간병자살이라는 비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돌봄의 위기는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체 노인의 약 11%가 이용하지만, 이용자 증가가 곧 돌봄체계의 충분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서비스 종류와 제공공간이 제한적이고, 방문요양 중심의 가사·신체수발에 편중되어 있다. 지속적 간호, 만성질환 관리, 방문재활, 치매돌봄과 가족지원 등 노인의 일상을 지탱할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다.

도농복합지역과 농어촌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서비스가 닿지 않는 것이다. 이제 장기요양보험을 ‘방문요양 중심의 보험’에서 ‘건강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재가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을 근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한계는 더 뚜렷하다. 전체 노인의 5%가 이용하는 큰 제도로 확대되었지만 대부분 단순한 안부·안전확인에 머물고 있다. 실질적 가사지원을 받는 중점돌봄군은 이용자의 약 8%에 불과하다. 외로움과 고립 은둔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노인을 위한 특화서비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거절하는 노인도 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다.

돌봄의 공백은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재가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노인은 필요 이상으로 일찍 시설에 입소하고, 이는 의료·요양 비용의 폭증으로 이어진다. 가족에게 전가된 부담은 더 참혹하다. 장기간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심신이 소진된 끝에 간병살인·간병자살이라는 파국에 이른다. 노인 자살과 이들 비극은 별개의 사건

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돌봄의 공백이라는 공통의 구조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곳곳의 붕괴 신호 앞에서 ‘돌봄 불감증’에 빠져 있는 듯하다.

보전복지부는 기존 제도의 유지·보완을 넘어 새로운 통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노인의 건강과 돌봄은 하나의 문제인데 행정은 여전히 분절되어 있다. 건강보험의 보건의료체계와 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서비스를 잇는 국가 차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국가적 전달체계 개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지자체의 단위사업으로 전락한다면, 제도의 이름만 바뀔 뿐 돌봄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

가족과 이웃의 비공식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 그 빈자리는 국가의 공식돌봄이 채워야 한다. 베이비부머의 후기노인 진입은 마지막 경고음일지 모른다.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외로운 노인의 죽음, 지친 가족의 붕괴, 조기 시설입소와 비용 폭증의 쓰나미가 한꺼번에 밀려올 것이다.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정부가 돌봄 불감증에서 벗어나 노인돌봄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결단이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허브) 대표

모든 ‘동전주’가 ‘현대전자’는 아니다



기지 수첩
허 정 운
(자본시장부)

2003년 3월, ‘현대전자’의 주가는 135원까지 떨어졌다. 1000원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동전주’였다. 지금의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하지만 현대전자는 ‘SK하이닉스’로 거듭난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기업이 됐다.

최근 코스닥 퇴출 요건을 둘러싼 논쟁에서 SK하이닉스가 거론되는 이유다. 지난 7월부터 상장유지에 필요한 시가총액 기준은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돈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회복하지 못해도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부실기업을 빠르게 정리해 코스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낮은 주가가 곧 기업의 부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기업은 지난 2월 49곳에서 7월 말 160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49곳은 영업이익의 흑자 기업이었다. 시장의 관심에서 떨어졌거나 주가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까지 가격만으로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주가가 낮은 모든 기업을 ‘제2의 하이닉스’로 볼 수도 없다.

현대전자는 그저 버틴 끝에 살아난 기업이 아니다. 채권단 관리와 21대 1 감자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도체 투자를 이어갔다. 2003년 3분기에는 영업흑자로 돌아서며 회생의 근거도 보여줬다. 이후 SK그룹 편입과 HBM 시장의 성장까지 여러 전환점이 더해져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이런 과정을 빼고 135원이라는 주가와 현재의 성공만 연결하면 곤란하다. 하이닉스 사례를 앞세워 퇴출 기준을 느슨하게 만들 경우, 사업보다 증자에 의존하거나 상장 지위를 자금 조달에만 활용하는 기업에도 시간을 벌여줄 수 있다. 그 사이 투자자의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 시장에 필요한 것은 퇴출의 속도보다 선별의 정확성이다. 주가와 시가총액은 심사가 필요한 기업을 추리는 기준으로 활용하되, 최종 판단은 더 입체적이어야 한다. 영업현금흐름과 재무 상태뿐 아니라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공시 위반과 불공정거래 전력, 경영진의 사업 의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한 기업에는 제한된 개선 기회를 주고, 그 기간 약속한 자구책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다. 살아날 근거를 보여준 기업에는 시간을 주되, 가능성이라는 말로 상장 지위만 연장하는 기업은 신속히 내보내야 한다.

모든 동전주가 하이닉스가 될 수는 없다. 반대로 지금의 가격만 보고 미래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현대전자가 남긴 교훈은 동전주를 무조건 살려두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기업과 연명하는 기업을 제대로 구별하라는 데 있다.

/zelkova@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일 (음 7월 21일) 포춘토리(fortunetory.com)



48년생 과도한 욕심은 금물. 60년생 금전운은 지출이 많으니 관리에 신경쓰세요. 72년생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84년생 애정운이 하락하고 있으니 서두르지 마세요.



49년생 너무 외로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1년생 모든 모임에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73년생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85년생 목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50년생 어려울수록 진실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62년생 공적인 일엔 행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74년생 교통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86년생 욕심이 좋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51년생 모든 문서 체결은 지금하세요. 63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려 보세요. 75년생 방황하는 당신의 마음 자체가 문제입니다. 87년생 이것 저것 손을 대봤자 싫증만 남을 뿐입니다.



52년생 깊이 있는 인생을 위하여 한가지 일에 열중 하세요. 64년생 능력 이상의 청탁으로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76년생 담배도 술이든, 한가지는 절제해 보세요. 88년생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53년생 심사 숙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65년생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중하세요. 77년생 이달 말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9년생 역시 친구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54년생 원대한 소원이라도 설사리 성취됩니다. 66년생 친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78년생 금전관계로 피곤하기는하나 이내 해결됩니다. 90년생 정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55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67년생 자신을 믿고, 행동하세요. 79년생 애정운은 하락세입니다. 91년생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의 일만 신경쓰세요.



55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67년생 자신을 믿고, 행동하세요. 79년생 애정운은 하락세입니다. 91년생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의 일만 신경쓰세요.



57년생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69년생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오니 기다려보세요. 81년생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될 것입니다. 93년생 행운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58년생 바쁜 한 달을 보낼 것입니다. 70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82년생 방해하는 자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94년생 노력을 한다면 원하는 수준 만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59년생 시간이 흐름수록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71년생 인내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83년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갑니다. 95년생 힘든 상황이 많이 닥치니 주의하세요.



김상회의四季 역사에서 배우다

역사는 단순히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다.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존재들의 생각과 행동이 무수하게 영향을 끼친 시공간을 아우르는 사건의 흔적이자 에너지의 새김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의 사전적 의미는 “과거 및 현재의 인간이 지적·예술적·사회적 활동을 한 산물의 총체 및 부분”이라고 되어 있다. 영어에서는 역사를 히스토리(History)라는 용어를 쓴다. 이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의 “히스토리아”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알다”·“보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시공간에 따른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을 기억하고 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히스토리 단어에서도 보이듯 ‘이야기’(story)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지 않겠는가? 필자의 생각이지만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스토리’가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동양적 의미의 역사는 사(史)·감(鑑)·통감(通鑑)·서(書)·기(記)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공평정대하게 기록된’ 기록물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하므로 “서양의 히스토리는 역사 서술자의 주관적인 서술이 중심을 이루는 학문이어서 동양의 사학과는 그 방법이 크게 달라 역사는 새로운 번역 용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충분히 수긍이 가는 얘기다. 그래서인가, 고대 로마의 철학자면서 뛰어난 정치인이었던 마르쿠스 키케로는 “역사는 인생의 스승”이라는 말까지 남겼다. 과거의 역사에서 배울 점이 너무나 많다는 뜻이라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동양의 한자성어인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 바로 그와 유사한 의미가 있다. 원래 이 말은 공자의 논어 위정(爲政)편에 나온 것이다.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 可以爲師)라고 하였으니 스승의 자격 됨을 말한 것, 교훈을 가르쳐야 하는 스승 된 자들의 지혜와 해안을 강조한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86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9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2	8	2	9	8	9	7	6
9	6	8	7	1	9	1	2	8
7	2	9	1	6	8	9	1	8
8	7	6	9	2	1	9	1	1
9	8	1	6	8	1	2	9	7
2	9	1	9	8	7	8	6	1
6	8	7	8	9	2	1	1	9
1	1	2	8	7	9	6	8	9
8	9	9	1	1	6	7	8	2

1	6	9	8	2	8	9	7	1
9	8	7	1	6	1	8	2	9
1	2	8	9	7	1	6	1	8
6	7	1	1	8	9	2	9	8
8	8	9	9	7	2	1	6	1
2	9	1	8	1	6	7	8	9
7	9	8	2	8	1	9	1	6
8	1	2	6	1	9	8	9	7
9	1	6	7	9	8	1	8	2

내년 교육 예산 117.6조… 10.6%↑

(전년대비)

지방국립대·AI 인재양성 집중투자

교육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4.9조 투입’ 미래대응기금 신설
교육교부금 78.9조… 매년 증가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예산 6646억 ↑

교육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117조 5962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본예산보다 11조2355억원, 10.6% 늘어난 규모다.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는 영유아 교육·보육과 지역·청년 지원, 인공지능(AI) 인재양성 관련 사업 4조9315억원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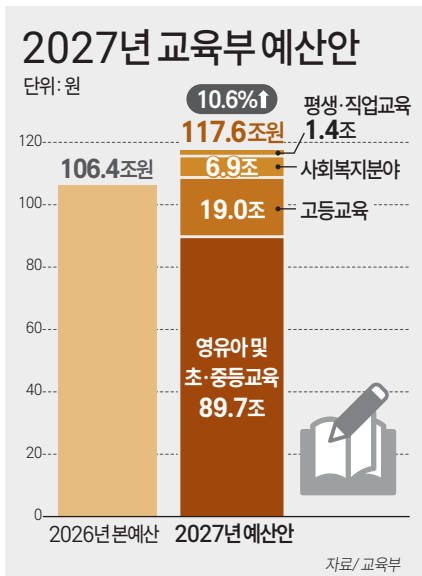
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7년 교육부 예산안 가운데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89조7354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 6189억원 증가했다. 고등교육 분야는 18조9661억원으로 2조9269억원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1조6687억원에서 내년 78조8718억원으로 7조 2031억원 증가한다. 교부금 산정 방식은 기존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에서 국가 경제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개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교부금은 2027년 78조90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 지방국립대 지원 확대

지역·청년 지원에는 4조4655억원을 투입한다.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은 올해 6487억원에서 내년 7944억원으로 확대한다. 3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성장엔진 및 AI 분야 패키지 지원 규모를 대학당 7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늘린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에는 3280억원을 편성한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의 등록금 지원에 2130억원을 투입하고,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원대상을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도 691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지방국립대 21개교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등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총액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학생의 직무 경험을 지원하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에는 465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일반대와 전문대 학생 6만

명의 실습학기 참여를 지원하고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와 월 10만원의 실습참여비용 등을 지급한다.

◆ 첨단·이공계·AI 인재양성 확대

첨단분야와 이공계, AI 인재양성 관련 사업에는 3조263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예산은 올해 4856억원에서 내년 6646억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청년도와 인재양성 부트캠프 참여 대학을 128개교에서 170개교로 늘리고,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에 140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도 6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지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 분야 이공계 학과가 있는 일반대와 전문대 약 40곳의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AI 재도약대학’에는 207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과 전문대 40곳에서 성인학습자 약 2만명을 대상으로 2년 내외의 AI 융복합 집중과정을 운영한다. 대학생 AI 공동육육 지원 사업에는 20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대학 컨소시엄이 AI 서비스를 공동계약하도록 국고와 대학이 5대5로 비용을 분담한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1조 적자’ 경기도, 내년 예산 전면 재검토

재정위기 극복 위한 3대 대책 제시
예산 재구조화·세제개편 등 논의

경기도가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2027년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선 9기 임기 동안 세입 1조 원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지방세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31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는 기획조정실장과 실·국장, 경기도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 10일부터 3주간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의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대책으로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민선 9기 임기 동안 세입 1조 원 이상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4대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 간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의 추진 방식도 전면 재검토하고 광역단체 고유 사무에 재정을 집중한다.

재정사업·보조사업 평가와 투자사업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지난달 31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검토 결과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평가 점수가 낮은 사업은 삭감하거나 일몰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은 재원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체납 관리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등 신규 세원 발굴, 도민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의 안정적인 배당금 확보 등을 추진한다. 도는 이들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세입 1조 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과제도 제시했다. 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한다는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지방소비세율 임기 내 40% 인상 ▲담배소비세 중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 부분의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5%의 광역지방 정부 재원 조정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대곡·킨텍스역 북서부 광역교통 거점지로

환승센터 구축 국가계획에 반영
고양·파주측 거점 환승센터로

고양시가 대곡역과 킨텍스역을 중심으로 경기 북서부 광역교통망 강화에 나선다. 고양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고시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에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와 킨텍스역 환승센터가 계속사업으로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는 수도권 광역교통축 가운데 ‘고양·파주측 거점 환승센터’로 이름을 올렸다. 대곡역

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를 비롯해 경의중앙선, 서해선, 일산선 등 주요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경기 북서부를 잇는 핵심 교통 거점으로 꼽힌다. 시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와 현재 추진 중인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조성 사업을 연계해 교통과 자족기능을 함께 갖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킨텍스역 환승센터 역시 이번 기본계획에 계속사업으로 반영됐다. GTX-A 킨텍스역을 중심으로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간 연계성을 높이고 환승 편의를 개선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주말 불꽃축제 개최… 안전인력 6800명 투입

오는 4~5일 ‘서울세계불꽃축제’
원효대교·여의동로 전면 통제
지하철 5·9호선 총 65회 증회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전야제를 포함해 이틀간 열리면서 서울시가 교통 통제와 안전관리 대책을 확대한다. 본행사 당일 원효대교와 여의동로가 전면 통제되고, 지하철 5·9호선은 증회 운행한다. 행사장과 인근 지하철역 등에는 총 6800명의 안전인력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오는 4일 전야제와 5일 본행사 열리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 대비해 교통·안전·편의 분야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본행사 불꽃쇼는 5일 오후 8시 시작된다. 서울시는 여의나루역에 인파가 집중될 경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폐쇄될 수 있다며 여의도역·마포역·셋강역 등 인근 역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5일 원효대교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



서울세계불꽃축제 행사. /서울시

63발당 앞 구간은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전면 통제된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버스 24개 노선은 우회 운행한다.

오후 7~8시와 오후 10~11시에는 여의도환승센터와 여의도역을 지나는 버스 26개 노선이 집중 배치된다. 노들섬과 한강대교 일대 일부 정류소는 오후 4시부터 9시20분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지하철은 5호선을 18회, 9호선을 65회 증회한다. 행사장 인근 21개 역에는 평소보다 3~5배 많은 안전요원을 배치한

다. 4일 전야제에는 평시 수준으로 운행하되 5·9호선에 비상대기열차를 각각 2편 성씩 준비한다.

여의도와 이촌 일대에서는 4일 오전 8시부터 6일 오전 7시까지 따릉이와 민간 전기자전거·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대여와 반납이 중단된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서울세계불꽃축제에는 한국·미국·영국 3개국이 참여한다. 불꽃쇼는 ‘라이브서울’과 ‘한화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현진 기자



▲美·이란 충돌 다시 불붙었다…트럼프 “강력한 공격” 예고
▲유엔사무총장, 미-이란 교전재개에 “최대한의 자제” 촉구 /사진 뉴시스

▲중추절 대목 앞섰는데…中, ‘산사태’에 타토파니 네팔 무역로 폐쇄
▲日 내년 예산 1200조원 넘어 사상 최대…“방위비, 85조원 넘을 듯”

▲푸틴, SCO서 “우크라 종전 노력”…中에는 무비자 영구화 제안
▲美 신형 미사일 PrSM, 이란서 첫 실전 사용…민간인 21명 사망 의혹



“착한기업 응원”
애국·보훈활동
가치소비 이어져
L1

metro®

Life

버거업계
조식·지역상생
고객잡기 총력
L2



“영화의 힘은 ‘사람’... 극장서 나눈 감정이 삶의 심포 되길”

속깊은 人터뷰

이 철 하 영화감독

기술이 화려해지고 인공지능이 영화를 만드는 시대라지만 이철하 감독이 연출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는 현장 그리고 관객에 있다. 최근 영화 ‘오케이 마담 2’를 새롭게 선보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감독을 만나 현장을 이끄는 소통 철학부터 관객과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감독의 세계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는 바로 ‘사람’이다. 그는 카메라 안팎에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놓지 않는다.

-전작에 이어 다시 한번 코미디 액션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났다. 연출자 입장에서 코미디란 어떤 장르인가.

“정말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스릴러를 좋아했던 사람이다. 코미디는 불특정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의도한 지점에서 정확히 웃음을 끌어내야 하는 장르다. 무섭게 하거나 울리는 것에 비해 개개인의 호불호 차이가 워낙 커서 매번 시험대에 오르는 기분이다. 하지만 창작자로서 누군가를 웃게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도파민과 묘한 매력을 준다.”

-웃음 코드라는 것이 대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 텐데 연출할 때 어떤 점에 가장 공을 들였나.

“현장의 기운과 소통이다. 잘 적힌 대본을 그대로 읽는다고 웃기지 않는다. 그날 현장 분위기, 사회적 흐름, 배우들의 에너지가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웃음이 터진다. 연출자로서 작가와 배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한다. 물론 미리 계산한 속도와 방향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지만 결국 영화는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만드는 생명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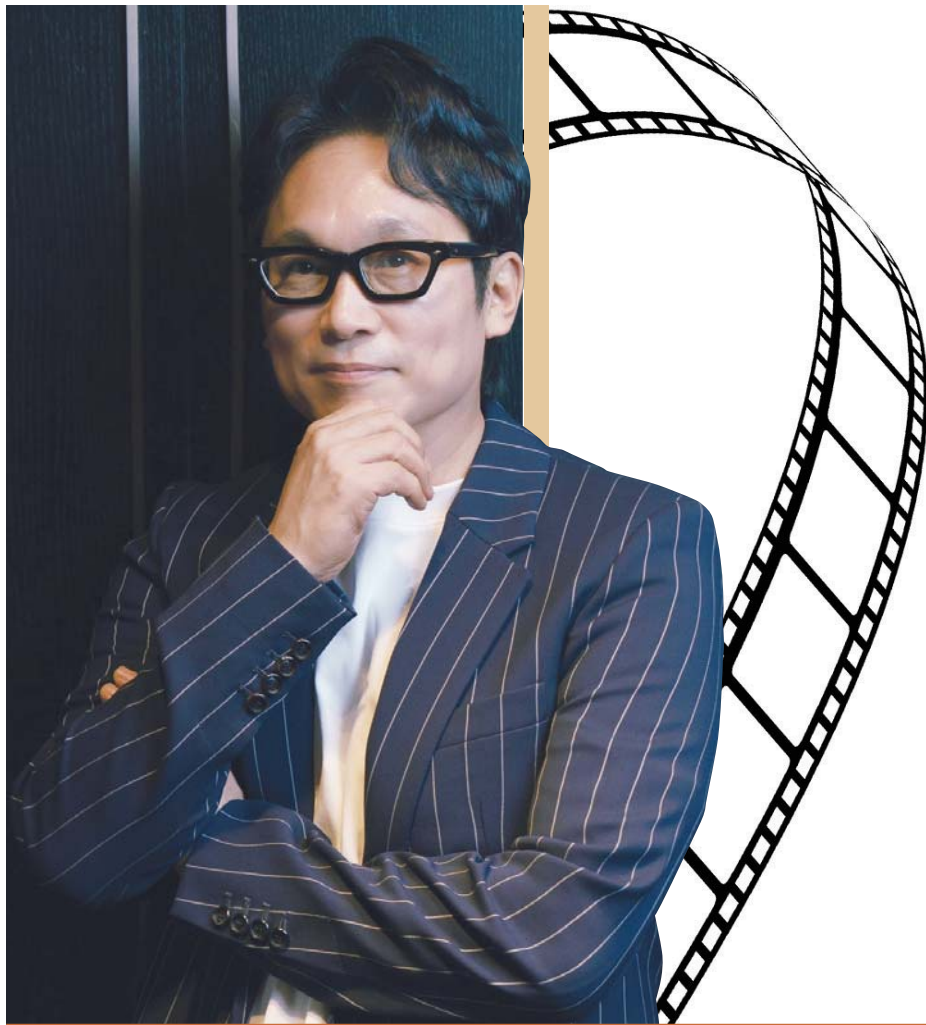
-그렇다면 현장 리더로서 ‘연출’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영화 연출의 본질은 사람과 대화하며 그 사람이 가진 최대치를 끌어내는 것이다. 연출자는 설계자이자 안금 조율자다. 현장에 가면 메인 스태프만 100명에 달하고 분야별 리더만 10명이 넘는다. 다들 각자 분야에서 조명 하나, 소품 하나를 두고도 의견을 쏟아낸다.

즉 연출자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부터 그림을 그리지만 현장에서는 미술, 음악, 촬영 등에 대한 베테랑들이 저마다의 프로페셔널함을 가지고 다각도로 협력한다. 그 프로들의 ‘이견’을 듣고 수용하고 설득하며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회사 생활과 똑같다. 그들이 역량을 최고조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제 몫이다.”

-작품 밖 현장에서 뿐 아니라 작품 속을 들여다봐도 수많은 캐릭터가 살아 움직인다.

“그렇다. 영화의 핵심에는 또 배우가 있다. 배우들이 캐릭터를 연구하며 내놓은 아이디어나 연기 중에 극대화하는 감정은 최우선으로 반영한다. 그래야 한 명 한 명 살아있는 멀티 캐릭터



가 완성된다. 이 역시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다.”
-‘오케이 마담 2’에서는 수많은 사람 이야기 중 ‘가족’이라는 관계에 집중했다.

“요즘은 1인 가구도 늘고 반려견을 비롯해 가족에 대한 개념이 크게 변하고 있다. 형제는 바뀌나 인간이 누군가를 온몸과 마음을 다해 돌보는 것 그리고 혈육이든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든 서로를 향해 나누는 정(情)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영화에서 살펴보면, 미영(배우 엄정화 분)이 사춘기 딸과 겪는 끈끈한 모녀 관계는 물론, 극중 미영을 쫓는 범죄조직 리더 안아(소녀시대 수영 분)와 팽팽하게 맞서는 대립 관계에서도 서로를 인지하고 감정을 주고받는 역동성이 존재한다.

또 가족이라면 겉으로는 티격태격하고 잔소리 오가며 불편할 때도 있지만 속으로는 울타리가 된다. 이번 영화 속 가족애가 다소 고전적인 소재일 수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도 변치 않는, 인간이 관계 속에서 가지는 진짜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현장 촬영을 마친 후속 과정은 어떠한가.

“출산을 하고 육아를 본격 하는 기분이다. 임신과 출산 자체도 힘들지만 이제 아이를 보살피듯 계속 챙겨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강행군 속에서도 스태프와 배우 모두에게 단 한 번의 사소한 사고 없이 무사하게 진행됐다. 천만다행이고 함께 고생하며 버텨준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그렇게 완성된 영화가 마주하는 또 다른 ‘사람’은 관객이다. 관객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최근 행사에서 영화감독을 꿈꾸는 어린이

최근 ‘오케이 마담2’ 영화 선행
코미디 장르, 현장 소통이 열쇠
사람과 대화하며 최대치 끌어내
변치 않는 가족애 가치 말하고파

기술 발전에도 극장의 힘 여전히
극장서 나누는 유대감·문화경험
대체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을 것

영화 감상 자체가 ‘즐거움’ 돼야
누군가에게 휴식과 용기 되길

”

관객들을 만났다. 아이들의 순수한 함성과 솔직한 감상평에 ‘오케이 마담 2’ 팀원들 모두 기쁨과 행복의 눈시울을 적셨다. 개인적으로는 한 직장인 관객이 ‘감독님이 열심히 일을 하며 그 결과 역시 열심히 즐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며 전해준 손 편지를 읽고 가슴이 뭉클했다. 누군가 제 영화를 보고 삶의 힘을 얻고 그 모습에 저 또한 힘을 얻는 선순환은 삶의 진정한 활력이다.”

-영화라는 매체가 관객이라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극과 용기다. 어릴 적 영화 ‘시네마 천국’을 보고 감독이라는 꿈을 다짐했던 경험이 있다. 영사기사 알프레도와 꼬마 토토가 나누는 교감, 그 둘의 추억과 배움이 토토가 자신의 길을 찾아 성장해 가는 데 확신을 준다. 영화 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보며, 영화라는 종합 예술과 감독이라는 꿈을 키웠다. 영화 한 편이 한 사람의 인생에 목표를 선물한 셈이다.”

-이제는 첨단 기술로 인해 제작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영화와 극장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나.

“2006년쯤 필름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불과 5년 만에 디지털로 전환됐다.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음악과 영상을 아주 쉽게 특히 간단하게 만들어내는 시대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극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19세기 후반 에디슨의 전구 발명으로 촉진된 전기 기술의 혁신과 영사기 등장부터 1895년 영화의 탄생을 거친 이래 감동한 극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영화의 빛을 밝혔다. 그렇게 영화는 관객과 함께 웃고 울며 감정을 공유하는 대중문화와 궤를 같이해 왔다. 스포츠 경기나 라이브 콘서트 현장에서 함께 함성을 지를 때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방 안에서 홀로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편리함과 극장이라는 공간에 사람이 모여 유대감을 나누는 가치는 차원이 다르다. 첨단 기술로 시대가 변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영화와 극장이 전달하는 문화 경험은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오케이 마담 2’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공포 영화든 코미디 영화든 장르를 불문하고 영화를 본다는 행위 자체는 즐거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화가 어떤 삶에 심포가 되길 바란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며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마담 미영(배우 엄정화 분)이 과거를 숨기며 살다가 비로소 자신이 가장 잘하는 모습으로 당당히 서듯 말이다. 아이든, 어른이든, 직장인이든, 주부든 오늘 당장 눈앞의 현실에 감하지 말고 주말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열어드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는 부담 없이 깔깔 웃을 수 있는 휴식이,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철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한국 축구 ‘임시 감독’에 모레노…내년 아시안컵까지 맡을 수도
▲고우석, 친정팀 LG 복귀 결정…오늘 오후 귀국해 계약 논의
/사진 뉴스스

▲원헌 김민재, 새 시즌 주전 경쟁 청신호…“없어진 안 될 존재”
▲3800년 전에도 땅 사고 계약서 썼다…썰기문자 점토판 최초 공개

▲공룡 발자국·천연동굴도 찾아간다…국가유산 방문코스 100곳으로
▲경복궁 근정전 월대 출입 제한…9월 2일부터 두 달간